



원화관 앞 '천구자상' 2015 서설 4월 4주

AU
1973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제간 소식지 2015 겨울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5-16 12.01.02 RENEWAL Vol.2
AJOUINSIGHT.
◀
◀이주인사이트> 2015(4348) 겨울호 권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통권14호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5-16 12.01.02 RENEWAL Vol.2

AJOUINSIGHT.
▲

봄이름가을겨울
◀이주인사이트> 2015(4348) 겨울호 통권 14호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SPECIAL
AJOU
GREAT TURNING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지?"



아름다운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대학에 와서 가장 즐거운 일은 학생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도 학생들을 만나면 늘 기운이 납니다. 총장을 만나고 싶은 학생들과 매 2주마다 하는 브라운 백(Brown Bag) 미팅을 열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용감하게 다하는 점을 항상 강조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이 밝고 씩씩하게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학기 들어 새롭게 시도한 '총장 북클럽'과 '총장 북 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 북 클럽에서는 한 달에 한 권씩 읽을 책을 정해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눕니다.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지만, 단순히 독후감을 나누기보다는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뿐 아니라 공부나 고민, 진로, 꿈, 삶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총장 북 릴레이'는 제가 먼저 책을 읽고 맨 뒷장에 한 줄 소감을 단 뒤에 원하는 학생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생각의 도전, 행동의 도전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들이 그 책을 돌려 읽는 모임입니다. 1차로 다섯 권의 책을 골라 각각 다섯 권씩 모두 스물다섯 권의 책이 지금 캠퍼스에서 이어되고 있습니다.

북클럽의 첫 번째 책으로 저는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을 정했습니다. 모험소설이지만 사실은 풍자소설로 더 유명한 작품이지요. 재미도 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걸리버는 소설 속에서 16년 동안 네 나라를 여행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인국과 대인국만 여행한 것으로 알지만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다른 두 나라를 더 여행합니다. 여러 면에서 경이로운 나라들이지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다가 문득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만약 걸리버가 한 나라를 더 여행한다고 하면 어떤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 여행하게 할까?"가 그것입니다.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작가인 조나단 스유프트(Jonathan Swift)

SPECIAL AJOU GREAT TURNING & ASIAN BIG4 REPORT

라고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숙제'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서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논리의 연결 이전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태도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수학과 송동훈 학생은 북 클럽 모임이 끝난 뒤 걸리버가 다음에 여행할 상상의 나라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제게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와 마지막 여행국 사이에 걸리버가 '인터넷 왕국'을 여행하면 어떨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무엇일까'라는 화두로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명으로 실습니다).

제 질문은 즉흥적으로 던진 것이었는데,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려는 제 의도는 너무도 멋지게 달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력을 '생각의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를 찾는 도전을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제도와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권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전학기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학생이 자기주도 하에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activities)을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도전과목은 적게는 3학점부터 많게는 18학점까지 구성할 수 있고, 한 학기에 9학점 이상의 도전학점을 따면 '도전학기'로 인정할 것입니다. 성적표에는 학생이 자기주도형으로 도전한 공부와 경험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도전과목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화, 산학 협력, 인문, 사회봉사, 예술과 문학, 스포츠, 더 나아가 우리가 상정하는 지평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분야에서 도전하는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

빨리 닫는다고 합니다. 특강이나 대화의 초입에서 들을 귀와 마음의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를 빨리 결정하고 한번 문을 닫으면 쉽게 다시 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간 소통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건강한 청년정신을 느낍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바로 그 '청년정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청년정신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잠재되어 있지만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의 '청년정신'이 활짝 꽃피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전학기를 비롯한 학교발전계획의 많은 내용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계획의 과제들에 대한 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



상상력이 곧 '생각의 도전' 유쾌한 반란의 시작

구성원 모두 '실천의 도전' 앞장 서 주어야

바르게! 다르게! 크게! 나아갑시다

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유쾌한 반란'을 주창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도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상상력의 자극이야말로 '생각의 도전'이자 유쾌한 반란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나 교직원 모두에게 이 '생각의 도전' 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초여름부터 우리는 학교발전 방향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대학이 가야 하는 '바른 방향으로'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우리 학교의 변화가 한국 대학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록 '크게'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 맞춰 미래 우리 학교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리는 상상력, 즉 생각의 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각의 도전'을 넘어 '실천에 옮기는 도전'을 하려 합니다.

그중요한 시도 중 하나로 도전학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전학기제는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는 것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이해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울타리 없이 생각의 도전을 하도록 장려해 주고 결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도전학기에 임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부나 활동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도전과목도 일부 제안하겠습니다. 그 과목들은 아주대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제안 도전과목들을 선택해도 좋고, 그 과목들을 기초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일부 수정한 뒤 도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가 담긴 내용의 input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갖게 된 소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의 문을

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학기제뿐 아니라 트랙(track)제, 인성 교육, 교수 총공헌제 등 과제 하나하나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생각의 도전'을 넘어 '실천의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천의 도전'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지만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도 그 못지않게 멀다고 합니다. (신영복 저음쳐림). 그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실천 없는 계획은 아예 만들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주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지는 바로 이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각과 실천의 도전'에 동참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제2창학'의 역사를 다 함께 써내려갑시다. ●

AJOU GREAT TURNING

아주 발전전략 10대 프로그램 소개

아주대학교는 대학이 가야 하는 '바른' 방향으로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아주대의 변화가 한국 대학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록 '크게' 바꾸겠다는 비전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교육 ▲교수·연구 ▲사회공헌 ▲국제화 ▲산학협력 ▲인프라 부문에서 핵심적 10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TRACK 또 하나의 전공 - 트랙 FIVE

관심사와 희망 분야에 따라 관련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를 '트랙'으로 묶어 전공확장 형태로 운영. 융복합·국제화·산학협력·기초학문·지역화 5개 트랙을 개설, 학생 직접 설계 트랙도 협의·승인으로 실시된다.

FLIPPED LEARNING CLASS 질문과 토론의 수업

수업은 영상으로 미리 듣고 철저히 토론식 수업을 하게 된다. 학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깊이 있는 친목을 꾀한다. 질문과 토론이 있도록 강의실 구조가 점차 원탁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AJOU INTEGRITY 빛나는 눈빛, 따뜻한 가슴의 인성

꽃꽂한 정성과 따뜻한 배려가 있는 21세기형 인재 육성. 지속적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미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예의 바른며 올곧은 실력의 아주인을 키운다.

KILLER ZONE 강점분야 융합연구

대형 프로젝트의 도전과 유치로 산학연, 학제 간 융합-공동 연구를 펼친다. 아주대 특화의 강점 부문 연구팀을 구성 입체적, 체계적 뒷받침을 한다.

AFTER YOU 사회적이동성 제고 프로그램

Social Mobility 철학을 기반으로 어려운 환경 탓에 해외 연수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경험을 제공. 재원은 취지에 맞게 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기부로 마련한다.

HUMANITY SCHOLARSHIP 인간존중 장학제도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인간 존중장학> <실사구시장학> <세계일가장학>을 신설. 장학금의 근본 취지 강화와 원활한 사회적 계층이동에 기여한다.

CONCEPT GLOBALIZATION 취·창업형 국제화

단편적 교류형 국제화에서 탈피한 글로벌 취·창업 등의 컨셉형 국제화 프로그램. BMW, CKP, KOTRA, OKTA 등 전략적 제휴 기관을 통해 해외진출형 인재를 양성한다.

LOCATION PREMIUM 경기과학벨트 중심 대학

관교IT벨트, CJ블로섬파크를 필두로 한 광교 바이오 벨트, 수원-기흥 삼성전자와 안산 강소기업 등과 다각적 유기적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 수행.

AJOU CREATIVE TOWN 스타트업플랫폼 대학

대학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육성 발전시켜 사업모델화하는 종합적,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아주대 앞을 문화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업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AJOU TRACK FIVE
 또 하나의 전공-트랙 5
 관심사와 희망 분야에 따라 관련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를 '트랙'으로 묶어 전공확장 형태로 운영. 융복합·국제화·산학협력·기초학문·지역화 5개 트랙을 개설, 학생 직접 설계 트랙도 협의·승인으로 실시된다.

변동하는 길한 길에는 멋진 오솔길도 있다
 세상은 외길 이 아니라
 이학강 영인

10
CHALLENGE
SEMESTER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지?”



누구에게나
어느 한 때의 도전이
긴 삶을 밝혀주는 북극성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체 내가 그때 뭘 믿고
그걸 할 결심을 했을까?"

무언가 이룬다는 것은
이런 도전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후회가 남는다는 것은
남들이 하던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만의 '유쾌한 반란'으로
당신만의 북극성을 가지십시오.



10
★

CHALLENGE SEMESTER 도전학기제 학생이 자기 주도하에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실천해 학점으로 인정

- 자기 설계와 체험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도전의 기회
- 국제화, 산학협력, 인문, 봉사, 문화예술 포함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지원
- 도전학점은 3학점부터 취득 가능/도전학점이 9학점 이상인 학기는 '도전학기'로 인정
- 재학 중 동일 주제로 도전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시 '도전트랙'으로 인정
- 도전학점/도전학기/도전트랙은 성적표에 별도로 상세 기재

학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재설계 가능

- 학교 제안 프로그램 중 일부는 교수대상 공모로 마련

학교 제안 프로그램 예시

국제화 부문

「해외기업 체험 프로그램」

해외 현지 기업에서의 실무경험과 자신만의 산학과제 수행으로
세계 무대에서 펼칠 글로벌 인재 양성

대상기관(예시)
- 독일 BMW, 미국 CKP, 미국 H-Mart, 세계한인무역협회(KKTA) 회원사 등 예정

- 주요내용
- 해외 현지 근무·산학과제 준비(기업연구, 현지문화·언어 학습 등)
- 해외 현지 근무 및 산학과제 수행

「해외 취·창업 도전 프로그램(동남아시아)」

해외지역 특화 전문과정과 현지 창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대상국가
- 캄보디아(전 학기 캄보디아 파견)

- 주요내용
- 지역 역사·사회·문화·경제·언어 학습
- 현지 창업아이템 조사 및 연구
- 현지 청년들과 함께 창업 실행

합업기관
- KOTRA, 캄보디아 현지 대학(프놈펜왕립대학 또는 쾨터사트라대학)

취업·창업·발명 부문

「캠퍼스 팩토리 CEO 육성 프로그램」

창업 교육과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창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기회를 창출하는 실무형 CEO 양성

- 주요내용
- 창업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기업가 정신 이해
- 시장조사 및 창업아이디어 발굴
-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모의 창업 실시

사회공헌 부문

「특수 재능기부형 시형각 장애인 봉사」

장애인 학습지원을 위한 특수재능 개발과 기부를 통해
사회와 호흡하고 봉사하는 나눔형 인재 양성

- 주요내용
-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이론 학습
- 수화통역, 한글숙기, 점자보정 학습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1:1 지원

인문·예술 부문

「아주 위대한 고전 읽기」

학생 자신만의 고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심화읽기를 통해
사회와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소통형 인재 양성

- 주요내용
- 고전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접근방법 학습
- 독서이력 점검, 고전 독서목록 설계
- 지도교수 1:1 튜터링, 토론 및 세미나, 심화 글쓰기
- 국내외 고전 토론회 참가

「영상 취재 및 다큐멘터리 영화제 출품」

방송제작에 대한 이론 학습과 현장 실습을 통해
주제별 깊은 시야와 취재 노하우를 겸비한 예비 방송인 양성

- 주요내용
- 촬영주제 선정 및 주제별 사전조사·학습 진행
- 방송제작(스토리텔링, 촬영론, 영상편집론) 이론 학습
- 인터뷰 초안 작성, 내레이션·나레이션 훈련
- 현지 취재 및 영상 촬영
- 촬영본 편집 및 영화제 출품

꿈의 생애를 살아가려면 더 이상 배워지 마라
사치과

내가 만드는 대학, 도전학기제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16주간의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진행되는 학기제도
열정·도전·자유·용기·책임감·자기주도성을 갖춘 아주인 양성 프로젝트





지금 아주는 위대한 창조적 대전환, GREATIVE를 꿈꾸고 있다. 아주는 착실하게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에 배고팠다.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시기이다. 위대한 대전환의 창조적인 길목에서.

교육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대전환인가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왜, 무엇을 향해, 누구를 위하여 대전환을 꿈꾸는가?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 아주의 성공일터, 따라서 졸업 후의 인생을 생각하는 학생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UNESCO의 교육 보고서 "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은 교육의 네 기둥으로서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be, learning to live together를 꼽았다.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질, 직업인으로서 능력, 성취인으로서의 성품, 그리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개인의 성공적인 삶의 터전이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있다. 이는 아주 대전환 교육소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대전환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는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배우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배움이 학습자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그러나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생각한다면,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배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라도 학생들의 두뇌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두뇌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본질을 보더라도 교육의 목표는 잘 배운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에 있지, 잘 가르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잘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어떻게 배움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룰 것인가? 그 해답 또한 "Learning: The Treasure Within"에 있다. 배움, 특히 learning to know

로 졸업생 경쟁력을 비교 우위 정도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수준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의 첫걸음이 될 취업에 실패하는 졸업생들만 양산할 것임에 틀림없다. 확실하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전자공학과와 특성화 사업이 그 대전환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 프로그램인 반도체 공정교육이 그 예인데, 이 교육에서는 집적회로를 학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타 대학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특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많은 자원과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대함과 창의성으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인생설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졸업생들이 성공적인 인생의 첫 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자공학과와 반도체 공정교육이 증명하고 있듯이. 바로 "learning to do"이다.

학부생 연구와 미래설계 교육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가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에서 학생들의 관심사와 인생설계에 맞춘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자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교수진은 지식 전수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안내자, 코치, 기회 제공자, 연구 동반자 등으로 그 임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이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한계까지 도전해 보고, 좌절을 넘어 그 한계를 극복해 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 경험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보아야 능력의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주 대전환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도전학기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도전학기의 참뜻은, 따라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현재의 교육에서는 성취하지 못할 수준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성취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을 것이다. "Learning to be"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들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NSSE(National Survey

위대한 꿈이 위대한 현실이 된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김상배

가사들속에 내재된 보물'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그해답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이 배움이며, 그것이 모든 지식 노동자의 숙명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므로 지식 교육에서 학습능력 배양 교육으로의 대전환, 그것이 아주교육 대전환의 한 축이여야 한다. 많은 지식들이 "one click away"인 시대에 살고 있는 지식 노동자들에게 진정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Learning to Know"는 "The Treasure Within"이다.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그 지식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알아내고, 찾은 지식들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학습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지식 노동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인 것이다. 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창의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여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고등인지능력 등 이른바 핵심역량의 토대 위에서만 길러질 수 있다. 우리 다산학부대학은 이미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출발점으로 삼아 핵심역량 평가와 교육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생들을 지식 소비자에서 지식 생산자로 탈바꿈시키는 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전환이다. 이미 우리 아주는 ACE 사업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 학생들을 지식 생산자로 교육시키는 데에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역량 배양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연구는 대학원생들의 몫이지 학부 학생들의 것은 아니라는 뿌리 깊은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래의 지식 노동자들은 "Learning to Know Knowns"의 차원을 넘어서 "Learning to Know Unknowns"를 성취하여야 한다. ACE 사업에서 이룩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디딤돌로 삼아 또 하나의 도약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2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34세 이하 대학 졸업자의 51.1%가 켄거루족이라고 한다. 더구나 15년 후에는 현재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므

학생의 성공이 대학의 성공

대학이 목표조차 삼지 못하던 아주의 성공 프로그램들 살려

문제해결형 고등인지력 갖게 해야

of Student Engagement)의 질문 항목 가운데 하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During the current school year, to what extent have your courses challenged you to do your best work?"

대학교육을 통하여 모든 신입생들을 '교육받은 졸업생'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은 몇몇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 전체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에 의한 개선체제에서 대학전체의 체계적 노력에 의한 개선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개선이 일상화 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한 대학발전이 가능해진다.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개선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핵심 요소는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평가와 분석이다. 이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문제점들을 알아내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렇게 찾은 해결방안은 면밀한 심의와 보안을 거쳐 시험 운영에 들어가며, 시험 운영결과와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해결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우리 대학교육혁신원이 이 체제수립을 주도해야 한다. 미국 대학의 인증평가와 현재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평가의 기본 철학은 이러한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려는 것이다. 그 평가의 대상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구성요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로서 졸업생 평가까지를 포함한다.

대학의 가치는 새로움에 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된 새로움으로 무장한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곳이다. 이 새로움을 이끌 도구로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기술과 뇌과학이다. 미래의 교육혁신을 가져올 이 두 분야의 발전을 주시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는 이미 교수학습개발센터의 learning analytics 개발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제 아주에서의 교육 대전환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꿈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그리고 위대한 꿈은 위대한 현실이 된다. ④



국내 최초, 교육제도의 혁신
국내 최초 학부제, 복수학위제, 교수업적평가를 도입했던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자율적 전공 선택, 경험확장의 기회, 질 좋은 강의를 보장한 혁신 대학.

꿈보다 앞서는 현실은 결코 없다. 신념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신념이 실력이다
-이문기 박의원

2010년 9월, 당시 학장께서 보낸 아주 의대생들의 졸업성적 저하와 매너리즘을 걱정하는 전체 메일에, 평소의 생각을 담은 '의대발전'을 위한 제안을 답신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다. 위의 글을 부제로 달아서이다. 그런데 학장님께서 이 편지를 전체 의대교수님들에게 회람을 시키셨고, 배포가 되자마자 전화로, 메일로 교수님들의 칭찬과 찬성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고, '문제학생이 왜 없냐?'고 반론의 메시지가 오는 등 생각지 않은 반응이 일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슈로 인한 작은 소동이 의대교수들의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4년간 통합 교육소위원장으로 일 하면서 '통합교육의 개편'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고, 마지막 해에 진행되었던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국내 의대 최고점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관심은 성공의 시작이다. 그런면에서 2015년의 '유쾌한 반란'은 신선한 충격이다. 아주인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 같다.

'스승과 학생' 두 주체를 연결하는 '교육'이 대학의 핵심이라면, 그 문제와 해결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물론 두 주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동의가 쉬워질까? '너는 왜 그러니?'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먼저 변화할 때, 자녀는 저절로 따라서 변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유쾌한 반란'은 교수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학생들만의 몫이 아니다. 나의 강의 ppt에, 수업방식에, 시험문제에, 그리고 연구테마에도, 또 할 수만 있다면 불록 나온 나의 똥배에도 '반란'이 일어난다면, 학생들이 환호하지 않을까? 학생들도 흥내를 낼 것이다. '유쾌한 반란'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역경(易經)의 3대원칙 중 하나가 '변역(變易)'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는다'라는 말이다.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오로지 스펙과 취업률에만 목을 맨 우리의 모습. 우리도 모르

양 일간지의 순위를 올리는 것보다는 아시아 대학순위, 세계 대학순위를 올리는 것이 더 쉽고, 나올 수도 있다. '아주(亞洲)'라는 이름답게 우리의 시야가 세계,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를 향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있듯이 대학에는 '정책'과 '문화'가 있다. 대학정책의 근간은 당연히 '교육'과 '연구'가 될 것이고, '국제화' '산학협력' '사회공헌'의 내용도 당연히 확장 가치가 될 것이다. 그 정책이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자부심'만을 키우려 한다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나의 강점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자존감'. 우리의 정책이 그랬으면 한다. 단지 재정이 모자라서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는 설득이 안된다. 정책설정과 실천의 우선순위가 이런 '자존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 하는 단과대학은 세계적인 단과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평등'의 논리로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교수로, 학생으로 대접받고, 관심받고 있구나' 함을 느낄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는 안하는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구나 하는 투자형 정책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의 인식년 개편, 복지시설 개선, 연구환경 지원, 학생들을 위한 학점제 변화, 공부 및 휴식환경 개선 등은 시급한 것 같다. 아울러,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의미에서 'AFTER YOU' 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양로원'등으로 지역적 봉사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주대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대우가 어렵스럽게 떠오르는 하지만, 의대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가파른 절벽의 강의실', 'MBC 드라마 종합병원'이 생각이 났고, 요즘엔 당연히 '이국종 교수'이다. 문화는 쉽게 만들 수도 없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도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아주대생'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도록,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아주대생은 딴 것 몰라도 정직해, 믿을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교수만 있다

지식의 재료들이 이미 학생들 손에 있어 남들과 명백히 다른 '반란적 문화' 가진 대학 되어야 'TOP1-1-1' 운동 해나가자

게, 교수와 학생 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로 물을 서서히 끓이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속에 가만있는 개구리와 같다. 지식의 재료는 이미 학생들의 손안에 쥐어진 세상이 되었다. 지식전달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디에 활용할지, 언제 활용할지를 가르치는 '인성-창의성-열정'을 키우는 전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 모델이 아주의대 1회 졸업생 '이국종 교수'가 아닐까? 다른 의사들이 기기를 모두 거부한 소말리아 해적 테러의 장소에 의사의 소명만을 가지고 간 '인성', 응급수술, 긴급후송 등 불가능한 일을 빠른 판단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해 내는 창의성, 목숨까지 사리지 않는 '열정'이 6발의 총상을 입고 시경을 해맨 석해균 선장과 아주대병원을 살려냈다.

또 있다. 우리의 하드웨어도 변해야 한다. 커피향이 나는 도서관, 사방에 칠판이 깔린 강의실, 개인별 모니터가 있는 강의실, 그룹토의가 가능한 강의실, 편안한 책걸상, 그리고 호텔(?)같은 기숙사, 쾌적한 학생 휴게실, 가보고 싶은 학생 헬스장, 실컷 책을 볼 수 있는 책방, 그리고 맛있는 식단...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또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학점제도 등 변화할 곳이 많다.

'Great Turning'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가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선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42년의 아주대 역사가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재단이 없어서 상대적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즈음에 (나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대학순위경쟁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재정악화로 '자율성'이 무너져 가는 이때, 대학교유의 가치를 '바르게 (Right direction)' 세우고자 함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매력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바로 전인교육의 핵심이다. 다르게 (Unique way) 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우리 자신'이지, '인서울' 대학이 아니다. 남을 흉내내서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우리만의 것을 가져야 되고, 특징을 키워야 한다. '크게 (Big change)' 변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모 중

수 있어 '아주대생은 아이디어가 좋아' '아주대생은 항상 최선을 다해, 미친 듯이 일해 우리의 졸업생들에게 이 세가지 수식어가 따라 다녔으면 좋겠다. 남들과 다르다는 '고유가치'를 1학년때부터 몸에 배게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전인교육의 핵심가치로 반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한다. 컨닝은 최고의 차용이고, 엉뚱함은 최고의 칭찬이고, 책임감은 최고의 자량이 될 수 문화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상과 장학금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정직-창의-열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전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제안한 핵심가치는 언제든지 합의하여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인간존중-실사구시-세계일가' 학교이념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졌으면 교수나 학생 모두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창출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4년간 노력해서 이루고 나갔으면 하는 일명 'TOP(triple one power) movement'를 실행했으면 한다. 일종의 1-1-1 운동으로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유창한 외국어 - 한가지 (특기수준의) 취미 - 한명의 멘토와 멘티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아주대생 하면 누구든지 전공 외에 뭔가 믿음만한 최소한 한가지의 외국어와 전공수준의 뛰어난 취미 실력이 있고, 평생 의논하고 함께할 멘토 한명, 그리고 일생을 통해 봉사하거나 섬길 멘티 한사람/봉사기관 하나가 있다면 '아주 멋진' 인생의 아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만의 '아주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때는 아주대생으로, 이제는 아주대 교수로, 지금은 아주대 학부형까지 되어서, '유쾌한 반란'으로 '아주 멋진 아주대학'이 되길 ㉠

정연훈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생애의 고고함을 동경하지 마라
선생은 언제나 첫 번째 거리에서 일한다

Location Premium-경기과학벨트 산학중심대학
판교(벨트, C)블로섬파크를 필두로 한 광교(바이오벨트, 수원-기흥)심성전지,
안산(강소기업 등)과 다각적, 유기적 산학협력을 펼치는 중추적 역할 수행



지난 10월, 경영대학 교학팀에 한 품 종이를 건넸다. 아주대 부임 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재임용 심사 서류였다. 이곳에 온지 곧 3년이 된다. 무사히 몇 고비를 넘기면 이곳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변화가 빠른 세상이다. 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대학의 일은 나의 일이다. 앞으로 이곳 대학에서, 나에게 남은 십수년 동안 또 어떤 변화들이 소용돌이 칠까. 먼 미래의 일은 나도 모르겠다. 항공사진, 우주촬영까지는 필요 없었다. 무인 항공기인, 딱 드론 높이면 족하다. 그간 몇몇 사진을 본 바로는, 땅바닥 위로 불과 4~5미터 높이인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야를 드러내곤 했다. 최근 딱 그 높이에서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는, 전직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시로 집중됐던 것이다. 그런데 계층 상승 사다리라는 90년대쯤 끊어진다. 이미 다 기득권을 채워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한 게 1995년인데, 대학교 설립이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300개가 됐다. 그런데 65만 명이 해마다 졸업해서 갈 직장이 있나? 없다. 받은 취직이 안 된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하평인터뷰 2015.08.26)

이게 사실이면 앞으로 예전만큼 대학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이후 고교 졸업생 숫자도 급감한다. 위험이 현실이 되면 파장은 실로 막대하다. 대학에 업을 둔 나도 곧 피부로 느낄 터인데 아직 난 땅바닥에 단단히 발바닥을 붙이고만 있다. 큰 위기감 없이 연구실의 네모난 PC 모니터 앞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친다.

어느 시기부터 한국의 대학은 '대학 평가'에 구속됐다. 모대학은 외국인 교원 비중을 높이려 수백 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재정적 곤란을 겪었다 하고, 일부 대학은 공공연히 졸업생을 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취업시켜 취업률을 끌어올린다고 한다. 취업전사 양성소가 되어 버린 한국의 대학은, 100:1을 넘나드는 아찔한 취업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학점을 높이는 곳일 뿐이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직설적이다. 대학 나오면 먹고

다양한 시설을 제공한다. 직원들은 모두 개인 방을 갖고, 주당 35시간을 스스로 정한 시간에 근무한다. 회사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포춘(Fortune) 선정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연이어 1위에 올랐다. 더 마음을 잡아 끈 것은 다른 IT 기업보다 연봉이 탁월하지 않지만 아무도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아주대의 새로운 비전에는 곧 닥칠 위기를 현실적으로 대면하고, 빠져들어진 대학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 모두가 행복할 길을 담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설령 한 발자국도 못 가 실패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목표이고,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그곳에 가려면 상이한 가치들의 OR가 아닌 AND적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랭킹과 비전 가치의 병행이다. 혹자는 랭킹이 뭐 그리 중요하고 반문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랭킹만큼 대학 홍보에 큰 영향을 주는 대체재를 찾기는 어렵다. 희생과 보상의 AND도 필요하겠다. 아주비전 2023의 첫번째 목표는 2015년 국내 Top10 재진입이다. 내년 초가 되면 또 한 번 기한을 뒤로 미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달성 가능한 기한을 두고, 실제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달성하면 좋겠다. In-SEOUL이 아니라서, 차포 떼고 게임하는 아주대여서 더더욱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사로 접한 한 지방 국립대의 사례가 마음에 꽂힌다.

전북대는 2010년 영국의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8위를 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선 2007년 43위였던 종합순위가 올해 19위까지 뛰어올랐다. 철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최후까지 살아남는 건 크고 힘이 센 종(種)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이다. 대학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현실에만 안주해선 안 된다. 취임 직후엔 보직교수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전북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대학 10곳을 둘러보고 벤치마킹 비교표를 만들었다. 학교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략) 그리고 교수 승진 요건을 2.5배 강화해 국립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정년 보장 교수들에게도 연구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중앙일보 2013.12.02)

우리는 좀 더 꿀통이 되어하지 않겠나?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일

살 수 있게 해결해 달라는 거다. 그걸 제시하는 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정부의 재정적 사랑이 듬뿍 쏟아진다.

여러 질문이 꼬리를 잇는다. 랭킹이 높으면 대학은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 국내의 취업경쟁이 뻥뻥 골목으로 치닫는데 끝도 없는 스펙 쌓기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은 많은데 뭐 하나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드론은 머리 위로 맴돌며 볼 보듯 뻥뻥 내일을 보여주지만 땅바닥에 발을 붙인 나와 대학은, 대학생은 딱딱한 현실에서 당장 먹고 사느라 여력이 없는 탓이다.

드라마 '송곳'에는 이수인이라는 꿀통 과장이 등장한다. 뭘 잘못해서 꿀통이 아니고 뭐든 제대로만 하려 해서 꿀통이다. 아주대가 랭킹이나 취업률에 취한 대학 사회에서 꿀통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이라는 지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면 참 좋겠다. 2007년 가을 뒤늦게 박사 공부를 시작하고 무언가에 홀리듯 연구에 몰두했다. 시장이 원하는 논문의 분량을 채우려 무던히 애를 썼다. 투자 대비 성과가 높지 않은, 정말 하고픈 몇몇 연구들은 아직은 마음 한 켠에 묻어둔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저학년은 전과와 부전공으로, 고학년은 학점과 토익 점수에 매달려 있다.

이제는 아주인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꿀통 교수들은 하고픈 연구에 몰입해 지식창출의 행복감을 만끽하면 좋겠다. 꿀통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꿀통 학생들은 듣고 싶은 강의 원 없이 듣고, 하고 싶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이 무얼 원하는지, 자유로운 지식의 유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대학은 행복을 갈구하는 유기체다. 치열한 세상에서 행복한 조직이 가능할지를 생각할 때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새스(SAS)를 떠올린다. 제임스 구나이트 회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경영철학으로 정년, 정리하고, 야근, 비정규직을 근절했다. 수영장, 후트니스센터 외에도 병원, 유아원, 상담센터, 세탁소, 미장원 등

랭킹을 원하면 랭킹을, 지적가치를 원하면 지적가치를

뭐든 '제대로 하려는 꿀통 정신'이 '보상'도 '행복'도 창출해

2015년 중앙일보 평가에서 전북대는 아주대와 동일한 16위를 차지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주대는 2007년 순위에서 변함 없었다. In-Put의 움직임이 없는데 Out-Put이 변할 리 만무하다. 지금 전북대 사람들은 이전보다 행복할까? 모두는 아니지만 행복의 파이는 커졌을 거 같다. '돈 없는, 보수적인 지방의 국립대'에서 얼마나 거센 저항이 있었을지 상상해 본다. 실마리는 개인의 희생은 조직 차원에서 동가(同價)가 아니라라는 사실에 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조직 전체적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가 된다. 돌맛을 이야기지만, 아주대 교수님 한 분이 논문 한 편을 더 쓰면 학교 전체로는 658개로 논문 수가 폭증한다. 이 정도면 랭킹을 움직일 힘이 된다. 그 수혜는 다시 구성원, 학생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대학 졸업반이던 90년대 초, 동기들과 LG-삼성을 비교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LG는 오후 7시면 대부분 빌딩의 불이 꺼지지만, 삼성은 낮도 밤도 없는 곳이라 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LG로 갔다. 오늘 아침 LG전자 주가는 54,000원, 삼성전자는 1,287,000원이다. 삼성 사람들은 행복해졌고, 대졸자들은 구름처럼 그곳으로 몰린다. 삼성은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했고, 구성원은 극한 희생을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이 있기에 견뎌냈다. 연봉이 높아졌고,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했고, 주가는 화답했다.

올해 12월말 무사한 재임용 고개를 넘는다. 난 새로운 비전이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다시금 생존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나에게, 대학의 위기나 아주대의 비전에 대한 고민은 결코 내 가족의 먹고 사는 걱정을 뛰어넘지 못한다. 부디 아주대의 새로운 비전에는 나의 일터 아주대가 곳곳이 버터널 청사진이 담기기를 소망한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그 과정에서 나도 학생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 안에 속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④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Flipped Learning Class
수업은 영상으로 미리 듣고 철저히 토론식 수업을 하게 된다. 학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깊이 있는 전학을 꾀한다. 질문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강의실 구조가 점차 원탁형으로 바뀔 예정.

비로소 무사히 고개를 넘는다. 새롭고 시대의
그리핀이 인간이 되어간다.



산업공학과 백승주

백승주 : 공대에는 공학인증제라는 것이 있어서 교수님과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교수님을 찾게 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건 매우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 커리큘럼에 따른 상담이지만, 이를 통해 공부법은 물론, 군 생활, 진로, 인생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재미있다.



정혜진 문화콘텐츠학과

정혜진 : 사실 수업은 물론, 공모전 준비, 진로 등과 관련해 도움 얻고 싶은 것이 많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뭔가 '어렵다'는 느낌 탓에 연구실 문을 쉬이 두드리지 않게 된다. 한 번은 축제 때 교수님과 공연도 함께 보고, 뛰고 즐겁게 놀았던 적이 있다. 그때 교수님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무언가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배지한 : 나의 경우 상처 받았던 경험이 있다. 신입생 때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 "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일축당한 느낌을 받아서였다. 막상 고학년이 되자 요즘은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 보이신다. 이런 경험과 인상에 의해서인지 선뜻 찾아가게 되지 않는다.

김경일 교수 :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다. 유럽과 미국 대학들은 교육 중심의 'teaching school'과 연구 중심의 'research school'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대학들은 대부분 후자다. 한국 대학들의 경우는 혼재된 형태다. 교수들이 연구와 정부 사업 등에 힘을 쏟다 보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 대학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



문화콘텐츠학과 배지한

이경민 : 지도교수님이 자주 바뀌고, 교수님에 따라 상담 시간이나 내용이 많이 다른 문제도 지적하고 싶다. 교수님과 여러 문제를 상의하고 싶지만, 수강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상담만 하게 된다. 묻고 답하는 영역의 주제를 확장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많다. 그럼에도 '공학인증제'라는 제도 덕분에 교수님과 일부러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경민 산업공학과

권용진 교수 : 공학인증제 덕분에 학생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 직접 찾아오는 학생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온라인'이라는 옵션을 학생들이 '아주 잘' 이용하여, 질문 하나 올리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 나는 상담이란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있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도 직접 찾아오라고 독려하는데, 그래도 대다수 찾아오지 않아 안타깝다. 학생 스스로 먼저 고민해보고, 구체적 질문을 가지고 오는 상담이 많이 부족하다. 아주대에 2007년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수업이 끝나고 질문하는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미국 대학에서 봉직할 때는, 매일 평균 2~3명이 질문을 들고 찾아왔다.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줄을 설 정도였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몇 명의 학생에게 물으니, 족보 구하면 된다고 답하더라. 문화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Academic advisor'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교수들도 매 과목 상담시간(office hour)을 정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상담시간에 대해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며, 내가 교수의 시간을 임의로 뺏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임정은 : 좋은 말씀이다. 현재는 교수님과 상담하기 위해 신청과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담을 위한 시간이 정해진다면 '교수님도 바쁘실 텐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것 아닌가. 그나마 공학인증제도 상담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지도교수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졸업했을 것 같다. 막연히 '교수님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아가도 교수님께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내게는 교수님과의 상담이 값진 시간이자 경험이다.



산업공학과 정혜진

정혜진 :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상담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고민하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기에 적합한 교수님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좀 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가령 학업을 이어가는 문제나 연구주제에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어도 처음에

된다. 이에 좋은 사례를 밝히고 싶다. 경북 K대 친구들의 사례다.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니 학교에서 교수님의 밀착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의를 갖고 기타 활동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이다. 해당 학생들은 교내에서 쌓은 실력만으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는 자신에 차 있었다. 아주대학교에도 이러한 학풍이 조성된다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학생들 또한 더욱 자신감을 갖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공학과 교수 권용진

권용진 교수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체계적 시스템과 전문인력 도입이 시급하다. 교수는 슈퍼맨이 아니다. 정부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도 기존 인력과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궈낸 아주의 성취에 놀랐다고 해도 하지만, 한정된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취업이면 취업, 상담이면 상담 등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학생 대상 서비스가 전문화·활성화돼야 한다.

특히 인문사회대 학생은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제시하는 로드맵만으로 진로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체계적 진로설계를 위해 전문가와 일대일로 구

물꼬만 트면 물길은 터지더라

소통 없이 발전 없다

특별 좌담_ 아주대학교의 학생-교수 대화의 현주소는?



대학의 발전도 결국은 최종 수혜자인 학생을 향해야 한다. 대학은 '선생과 학자들의 공동체'라는 라틴어 어원(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을 갖고 있다. 학생과 교수, 두 주체의 공간이라는 뜻이다. 동양에서도 '학문은 결국 질문과 답'이라 보았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학생과 교수 사이에 대화가 없어졌다'라는 탄식이 높다. 두 주체의 소통이 약하면 '발전 계획'의 추동력도 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의 현실은 어떨고, 어떻게 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이공학 교수인 명과 관련 전공 학생 넷, 인문학 교수 한 명과 관련 전공 학생 둘에게 난상토의식 주문을 해보았다.

"공학인증제 소통역할커... 활용성 제고 필요"

"공모전 등 학생 교외의 활동 교내 흡수력 있어야"

"아카데미어드바이저 제도 등 시스템과 전문화 절실"

"놀이 문화 활발하면 소통도 결과도 폭발적일 것"

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수 개개인의 차이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야 학생은 물론 교수들도 교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 : 10년 전 아주대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수는 물론 선후배 사이가 어렵고 서먹한 대학들도 많은데 아주대학교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놀이 문화'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울려 놀면서 오고가는 이야기에 친해지는 법이다. 계획된 프로그램도 좋지만, 선구자상에 겨울 양말을 신겨 놓는 것과 같은 자발적이고 일탈적인 놀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놀이 문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폭발적일 수 있는 법이다.

권용진 교수 : 대학이라는 곳이 곧 '유니버스(universe)' 아닌가. 즉 대학이란 다양성이 보장되고 활기차게 넘실대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연스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아와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의 대확대 대학이 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 벌써 보람이 느껴진다. 더 나은 아주를 위해, 더 많은 학생과 직원, 교수들이 더 자주 모여 자유롭게 활발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구성원간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 깊이 새겨진다. ●

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야 할지 기능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기 쉽다. 이럴 때 교수님의 전공과 관심분야 등의 체계적인 정보가 학생들에게 미리 주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경일 교수 : 한국은 친구와 선후배 간의 조언문화가 발달한 반면, 학생과 교수 간의 가교는 부족한 편이다. 서구권의 경우 동년배 간의 조언보다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활발한 편이다.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촘촘히 놓여있어서다. 우선 TA(teaching assistant)가 학생들의 일차적이자 기초적인 수강지도 및 상담을 맡는다. 여기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수들과 만나서 해결해 간다. 한국 대학은 이러한 '징검다리'가 부족하다. 한 두 개의 징검다리만 놓여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대 학부생이 총 1000명도 안되던 시절에는 교수들이 마치 서당 훈장처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부생만 8000명이다. 밀착 지도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임정은 산업공학과

배지한 : 요즘 학생들은 '할 일'이 많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공모전, 동아리, 인턴활동 등도 할 일 중 하나가 됐다. 교수님께 대외활동과 관련한 조언도 구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학교 안에 머무르는 시간은 줄어들고, 교수와 학생 사이는 더욱 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

커먼 토크는...
것은 세상에
것은 세상에
것은 세상에



먼저 '사람의 자식'으로 다시 '자연의 자식'으로 농부 철학자에게 교육을 듣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윤구병

서울대 철학과 졸업, 충북대 철학과 교수, 월간 <뿌리깊은 나무> 편집장, 변산공동체학교 창립, 현 대표, <보리 출판사> 대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 보장과 명예 권력을 지닌 신분 중 하나라 할 '교수자리를 스스로 버렸다. 졸업장 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질문과 토론이 없는 강의실에서 '행복'하지 않았다. '손과 발과 맘으로 배우는' 변산공동체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그에게 교육과 오늘날의 대학은 무엇일까, 교육의 궁극 목표는 첫째, 스스로 앞가림을 하게 하는 것, 둘째,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지엄말단'일 뿐이란다. 과격하고 이상적으로 들리기 까지 한다. 그러나 거대하게 관성화된 이 시대의 모습에 '자네, 제도, 기구들에 부림을 받는 이가 지식인'이라는 그의 지적은 간단없이 아프게 들려왔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거기서 '발전'의 영감을 받고 싶어 했다. '간담과 동행' 중이면서도 인터뷰에 응해 준 윤 선생은 자신의 삶을 말할 땐 겸양 속에서도 강고했으나, 사회를 말할 땐 벅속 깊이 아파하는 모습이 비쳤다.

●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은 후의 대학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직업이자 직장이라 했던 곳을 제 발로 나온다 하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 일색이었지요. 하지만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절실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가슴 속에 품은 절실한 질문들이 있는데, 강의실에서 그것을 풀어놓지 못했습니다. 절실한 질문은 없고, 그저 질문 없는 대답, 대답 없는 질문만 평행선을 그어 가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다수 학생들에게 대학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나날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지혜와 현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는 대학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공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이뤄집니다. 작업장이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참 공부는 시작됩니다. 이 말은 농사꾼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것이, 교수로서 책상 앞에 앉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음을 느끼기에 스스로 없이는 말입니다.

● **학생과 교수에게 구체적 조언을 해주십시오.**
교수들에게는 '가르치려 들지 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5년 대학생활 중 절반 정도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5명~7명을 동아리처럼 묶어서 고대, 중세 철학사별 과제를 줬지요.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 대해 조별로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녹취록과 리포트를 내라는 겁니다.

● **것을 바탕으로 일구신 곳에서 어떤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요?**
변산공동체는 처음부터 '변산공동체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터와 일터가 동떨어지고, 배움터마저 살터와 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근대식 제도 교육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고 보았기에 변산공동체를 일구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동안 스스로 앞가림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참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에 공동체학교의 '학생'이라 여기고 시작했지요. 아이들을 가르쳐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절하다 못 이겨 마침내 그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자가 자식 공부에 뜻을 세우면 못 막습니다. 실험학교를 현실학교로 막우가 내로 해해요. 변산공동체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러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머리 굴리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로 국어와 역사만 필수고 나머지 과목은 자발적 공부입니다. 목공과 도예, 천연염색과 탈춤 등도 배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산살림', '들살림', '갯살림'을 놀면서 배우게 합니다. 거기서 손

어른이 정한 답 맞추기만 한 아이들 교육이 본능보다 못해 참사맛아



먼저 교수들끼리 토론 나서고 학생들끼리의 토론 수업 유도하길

과 발, 몸을 놀립니다. 손과 발을 놀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으로부터의 공부, 스스로의 공부, 자기 앞가림과 도움 주고 받는 길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질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생명 자원은 그 어느 나라보다 풍부합니다. 3면이 바다에다 갯벌이 있어 다양한 생물이 살고 산지가 70%임에도 땅이 비옥해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요. 이걸 아이들이 배워야 하고, 살림꾼을 길러 먹고 사는 것만이 큰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사회는 저마다 통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위계질서의 공간이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 생명체와 '스스로 함께'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강아지풀도 누가 시켜서 가아 나라, 스스로 싹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고, 그 열매나 씨앗으로 배풀고, 죽을 때 알아서 죽고 땅에 묻힙니다. 결국 스스로 하는, 자연으로부터의 공부 가 자율성입니다.

자유롭게 시킨 것 같지만 일정한 목표를 위해 까다롭게 성적을 매겼지요. 그 일환 중 하나가 개인별 성적이 아닌 팀별 성적의 교수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게 하고, 큰 물줄기를 잡아주고,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지 않게만 해주는 겁니다. 당시 서울대 철학과와 충북대 철학과의 입학 성적 차이는 100여점이 족히 넘었습니다만, 시첫말로 '서울대생 저리가라'급은 되었다 봅니다. 굉장히 넓혔다가, 깊이 보는 눈은 월등해 졌다고 지금도 자부합니다. 한마디로 공부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교수님들끼리 동아리를 먼저 만들고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식을 권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제일 부족하다 싶은 건 '귀담아 듣는 일'이라고 봅니다. 토의·토론형 공부는 말을 주고 받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상 도움을 주고 받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듣기 훈련이 돼있어야 해요. ①듣기-②말하기-③읽기-④쓰기의 공부를 익혔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손과 발로 땀 흘리고 몸으로 아는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농활'이다 뭐다 해서 농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로는 그런 학생들을 보지 못해요. 농촌에서 내 손과 발, 맘으로 하는 공부를 경험해봤으면 합니다. 이는 흙, 바람, 햇빛, 비, 유기물과 무기물 등 전체 자연이 참여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 **'변산공동체에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 중심이라는 자율성이 있지요. 그**

● 농사일을 시작 하시면서 얻은 깨달음이신가요? 언젠가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을 인용하시며 '농촌은 인류의 생명창고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농사일을 배우면서 적어도 나는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지 않았습니...

농업은 '기르기가 중심이 되는 삶의 길입니다. 먹이와 옷, 집의 원료가 되는 풀과 나무, 그리고 짐승들을 길들이고 기르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 아니죠. 자연은 전체로 참여합니다. 사람을 기르는 교육과 양육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데 산업 사회가 농경 사회를 대신하면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학교'라는 기관이 놓여있지요. 교육은 위기가 코앞에 닥쳐도 바뀌지 않으려 합니다.

학교라는 기구가 자연과 삶터에서 동떨어져 실험실 형태로 유지되어 온 게 문제라 봅니다. 실험실 같은 학교는 그 부지가 아무리 넓더라도, 시설과 장

● 학교가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픕니다. 공부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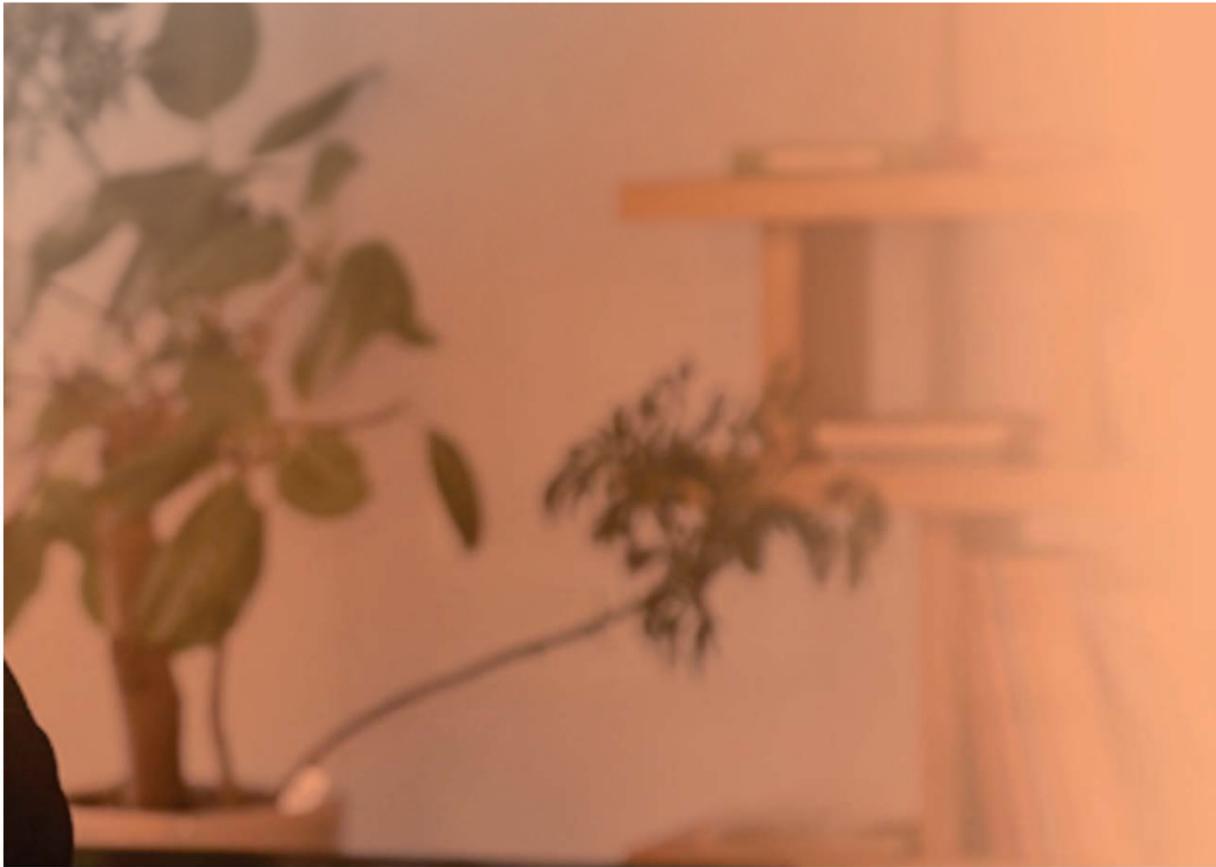
크게 보아 앞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읽은 지식이 있고,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법칙 같은 추상 지식이 있죠. 마지막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앎이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할 때의 '안다'는 즉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쌓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는 것,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 - 그게 바로 부모와 사회가 해줘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정답이 하나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답을 맞아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필을 구하는 구조지요. 정답을 어른들이 정해주고, 아이들은 따라만 갑니다. 현실 어디에도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의식과 감수성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봅니다.

매달 16일에 머리를 깎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킨 것에 대한 속죄이지요. 세월호 사고를 목격하고 '우리교육현실이 사람을 죽는 길로 이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배가 기울어 물이 차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학생들이 따랐어요. 본능에 맡겼더라면 뛰어 나왔을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본능보다 못한 공부가 교육이러니요.

교육이 근본을 잃었어요. 왜 배우느냐, 왜 가르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정직하고 바르게 가져야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타고 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

머리로만, 혼자서만 이는 공부인데 팔과 다리로 '할 줄 아는' 사람 길러야



파주의 보리출판사 리운지에서 <아주인사이트> 팀과 인터뷰 중인 윤구병 선생

교육, 코앞에 위기 닥쳐도 잘 안 변해 실천하는 '앎'의 '생존지대계'가 교육

비가 아무리 좋고 정교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람의 자식'으로 길러내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람의 자식이기에 앞서 '자연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제는 '지구공동생명체'가 시간을 마냥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식량 자급률이 20%도 못 되 뜻밖에 이 부분에서 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에너지 공급이라도 중단되면 도시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곧 이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씨앗'을 너무 몰라요. 시골 사람들은 죽어도 씨앗을 품에 안고 죽습니다. 위기 시에 어디를 가면 살 수 있다가 있어야 해요. 이런 생명공동체가 여기저기 있어야 합니다. 급박해졌을 때 함께 살아가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안면을 익혀야 합니다. 공멸을 막고 살길을 여러 갈래로 열어 놓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 즉 '거점'이 많아져야 합니다.

에게 배우고 나누어야 합니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가 아니고 '생존지대계'여야 합니다.

● 아주대생과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한 번쯤 참 자연 속으로 망명해 보길 권합니다. 초콜릿 복근도 만들어 볼 겸, 변산공동체라도 와서 3일만 견디길 바랍니다. 몸과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가지시길 권합니다. 작업복만 들고 오세요. 숙식은 책임집니다. '배적 삼흥백 적시며' 우리 입에 들고 나니 걸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방'의 진정한 정신을 공부하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이 가장 큰 스승입니다. ●



진초처럼 깎발하러
비강이 일여겨 준다

인간존중 · 실사구시 · 세계일가 장학제도
경제적 문제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인간존중장학><실사구시장학><세계일가장학>을 신설.
장학금의 근본 취지를 강화하고, 사회의 계층이동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



SPECIAL ASIAN BIG4 REPORT

아시아 명문대는 어떻게 글로벌 명문대가 되었나?

<이주인사이트> 특별취재 ① 아키타국제교양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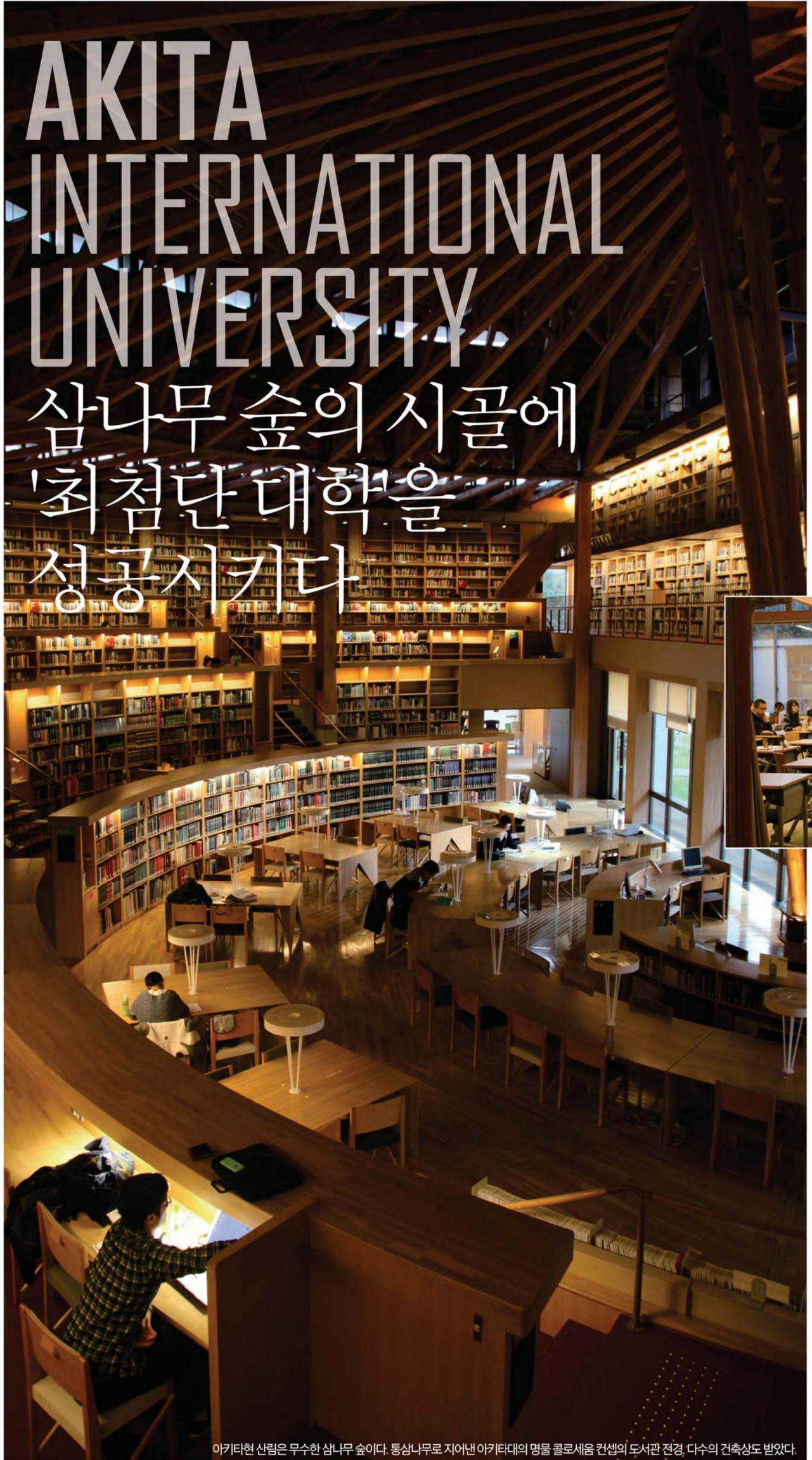
国際教養大学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2004년 일본 아키타현 아키타시 교외의 유와마치에 설립된 작은 대학으로 매해 신입생 200여명 정도를 선발한다. 건학 이념으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내걸고 전공 없이 교양 교육만을 실시하는 리버럴 아트 컬리지로 출발했다. 폭넓은 교양 교육을 통해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실천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커리큘럼 뿐 아니라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역시 일본 다른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동경외국어대학 총장을 역임한 후 나카지마 미네오(Nakajima Mineo) 초대 총장 겸 이사장은 변화가 어려운 일본 대학들의 한계를 절감, '모든 면에서 새로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부터 총총히 설계했다. 이 대학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며 ▲top-down 방식에 의한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시스템 ▲제3자 평가 시스템에 기초한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삼나무 숲의 시골에 '최첨단 대학'을 성공시키다



아키타현 산림은 무수한 삼나무 숲이다. 통삼나무로 지어낸 아키타대의 명물 콜로세움 컨셉의 도서관 전경. 다수의 건축상도 받았다.

1년 의무 해외유학, 아무나라 자유 예술수업 1과목 의무 선택, 기숙사 1년 의무생활

18 수업당 학생수 최대 18명의 원칙

24h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24시간 밤을 밝히는 도서관

100% 100%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1 2014년 기업에서 꼽은 신입사원 선호도 1위 대학, 4년 연속 취업률 100%

이키타 공방에서 불과 5분여, 국제교양대학 캠퍼스는 그야말로 고조되었다. 이키타현 명물이라 할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작고 외딴 대학은 설립 10여 년 만에 '혁신적 교육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대학의 성공 비결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국내외 취재진이 찾아오고 다른 대학들이 이 대학의 프로그램을 본 따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작은 사골 대학의 기적은 '유능하고 개성적이며 심지가 굳은 인재'를 키우겠다는 명확한 교육철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특한 구조의 출발'로 가능했다.

본래 국제교양대학 창학 구상은 한 행정가로 부터 시작됐다. 데라타 스케시로 이키타현 지사는 건설업 종사자로서 세계를 다니다 "지구촌 어디서나 원하는 일본인 청년 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를 발의했다. "시골에 웬 대학 설립이나, 예산 낭비다"라는 의회의 반대에도 부딪히 한 차례 좌절했다.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회를 설득해 자신의 포부를 밀어 붙였다. 이후 동경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나카지마 미네오 교수를 모셨다. 대학 개혁이라는 시도와 좌절을 경험해 본 미네오 총장은 "총장-이사장 일원화를 해야 목표에 빨리 닿을 수 있다"며 이를 관철시켰다.

그는 생전의 저서 <기적의 대학>에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 받는다고 싶으면 철저히 저항하는 학부 차지, 교

당)은 일본 대학의 혁신을 돕기 위해 국제교양대학의 사례를 참고,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제교양대학의 공용어는 영어다. 전임 교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교수진의 각종 회의도 영어로 진행된다. 재학생들은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어우러져 생활한다. 매년 국제교양대학을 찾아오는 외국인 학생은 100여명, 신입생들은 1년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룸메이트는 무조건 국적이 다른 학생으로 지정된다. 작은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문화를 경험하고, 의사소통능력·사회성 뿐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는 힘을 키워간다.

국제교양대학에는 '전공'이 없다. 학생들은 교양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는 갓 교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볼 틈조차 없었던 학생들을 협소한 전문 교육의 영역으로 밀어 넣어봐야 폭넓고 깊이 있는 지적 토대를 쌓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학생들은 예술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두루 배우고 익히며 특정한 지적 기반을 쌓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발견하고 탐구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나갈게 된다. 모든 수업은 수강생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대체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진행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며 조리

다. '국제교양대학 졸업생들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뽑고 싶다'고 대답하는 기업 채용담당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학생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들이 넘은 벽과 인내력 자체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이야기 가 많다."

국제교양대학의 학사 관리는 다른 일본 대학들에 비해 철저하다. 실력을 갖춘 학생만 졸업시키려는 원칙을 고수한다. 성적 평점으로 진급, 졸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4학기 연속 평균 평점 2.00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와 의 정기 면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향상되거나 의욕이 보이지 않는 경우 휴학이나 퇴학 권고를 한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에 신입생들은 그 준비로 '영어 집중프로그램(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에 주 20시간 참여하는데 토플 점수 500점을 받아야 이수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떠나도록 되어 있는 해외 유학도 토플 550점을 넘기지 못하면 갈 수 없다. 준비 없이 떠나보야 얻을 수 있는 바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취업지도와 관련해서도 이력서 작성법이나 기업 방문 시의 매너, 면접 방법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들 보다는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이 업무나 직업에 대해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일찌감치 졸업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노동과 직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진로 상담에서 중시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마한 영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어 능력을 사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체 무엇을 위해 애써 영어를 공부하는지를 묻고 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아

한정치인의 꿈 "세계가 찾고 미래가 원하는 대학 세우자" 어느 총장의 경험 "총장-이사장 일체형 탑다운 체계 만들라"



외국인 교수 강의 모습. 학급당 학생 최대 18명을 지킨다.

발전의 초석을 세운 초대 총장 흉상

<아주인사이드> 취재에 응하는 재학생

캠퍼스 전경. 역사에 있지만 '국제' 학교답게 공방에서 5분 거리다.

첫 졸업생부터 도쿄대, 교토대 압도적으로 제쳐 기업들 "아키타형 소신·교양·인내를 채용한다"

수취 차지, 교육 과정 뒤의 교원들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전체의 운영방침에 관해서는 경영회의(management council)에 일임하고 교학의 방침에 관해서는 교무회의(academic affairs committee)에서 결정한다"고 구제화 시키는 동시에 총장-이사장을 겸임하는 강한 리더십의 대학을 실현시켰다.

<아주인사이드> 취재진을 만난 국제협력센터 마사키 나카스(Masaki Nakasu) 부장도 "초대 총장 겸 이사장이 커리큘럼 뿐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부터 철저히 설계했다"며 "다른 일본 대학들에서 교양학부를 설립하는 등 국제교양대학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닌 우리 대학의 장점 중 1~2가지만 적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강연도 나섰던 나카스 부장은 또 "한국과 일본의 대학 혁신을 둘러싼 토양은 매우 비슷하다 들었다"며 마네오 총장이 초석을 마련한 국제교양대학에서의 이러한 신속하고 유연하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에 한 번 해보자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전통이자 자산이 되었다고 정의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우리의 교육부에 해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군 제대 후 유학을 결심했다는 김동영 학생(1학년)은 "갓 입학한 일본인 친구들은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교수님들이 자연스럽게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다"며 "국제교양대학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대기업 취업에 한정됐던 시각이 점차 넓어짐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3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년 간의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떠난다. 여학생들과 국제적인 마인드는 물론 각종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용기와 인내력, 담력을 키우기 위한 장치다.

국제교양대학의 교육 철학은 첫 졸업생이 나온 2007년부터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 기업들이 주목하는 대학 1위에 동경대, 교토대 등의 전통적 명문대를 제치고 압도적 점수 차로 선정 됐을 정도. 첫 해 졸업생들이 취업에 100% 성공한 이후, 수년째 이 사회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교양대학 설립 한해 전 합류해 이 학교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 온 마사키 나카스 부장은 일본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개교한 뒤 몇 년간은 직원들이 각각 기업들을 몇 백 개씩 맡아 우리 대학과 학생들을 알리려 다녔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우리 캠퍼스를 방문, 학생들을 뽑아갈 정도로 지경도가 높아졌

감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제교양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장원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며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서로 자극받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국제교양대학의 장점"이라고 전했다.

학교가 교수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학생 교육과 지도'다. 교수 평가 시 ▲교양 ▲연구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교육에 대한 평가다. 교수 채용에 있어서도 연구 실적 보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켄 이소가이(Ken Isokai) 사무국장은 "교수 채용 시 재학생들이 직접 모의수업을 참관,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이는 평가에 반영된다"며 "모든 교직원들은 3년 계약 연봉제로 한해의 성과가 그 다음 해 연봉 책정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 이는 오롯이 수업 준비를 위해서"라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즉각적이며 심층적으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학생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응한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학생 상담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이나 니더라도 학생들은 주저 없이 교수 연구실을 찾아간다. 캠퍼스가 크지 않아 서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교육과 행정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교수들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④

▲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전통적 의미의 대학과 교육 시스템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곧 기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인류는 세대를 통해 이어지고, 사람은 물건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 대학들이 이제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런 추세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에도 벌써 미국과 유럽 대학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아키타대의 지난 10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2대 총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일본 사회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다. 이제는 일본 교육에 있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다. 최근에는 국제교양대학의 커리큘럼과 경영방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곳에서 찾아오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이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필수 기거하는 1년간의 해외 유학, 그리고 특유의 시스템화 된 강력한 리더십이 성공을 가능케 했다.

▲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면?

요즘 다른 대학들이 우리의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연구·모방하면서 국제교양대학이 가지고 있던 차별점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더 차별화된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MOOC(온라인 공개강좌, Massive Online Open Course) 연계 코스 개발 ▲커리큘럼 얼라인먼트(Curriculum Alignment)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커리큘럼 얼라인먼트는 미국에 있는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문학과 자연과학 쪽에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개선해 갈 것인데, 이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강화하려 한다. 재휴대인 아주대의 관심을 바란다. 또한 아키타대가 알려지면서 초기보다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는 경향이 줄어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를 면밀히 조사해서 새로운 대응책도 구성할 것이다.

노리히토 스즈키 총장

인디애나대학 경영학 박사 1978
일본 도쿄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 1986-2012
국제기독교대학교 총장 2004-2012
아키타국제대학총장 겸 이사장 2013-



세계는 스펙트럼제화가 아니라 마인드국제화로 통한다.
Act Now!



SPECIAL ASIAN BIG4 REPORT

아시아 명문대는 어떻게 글로벌 명문대가 되었나?
<아주인사이트> 특별취재 ② 홍콩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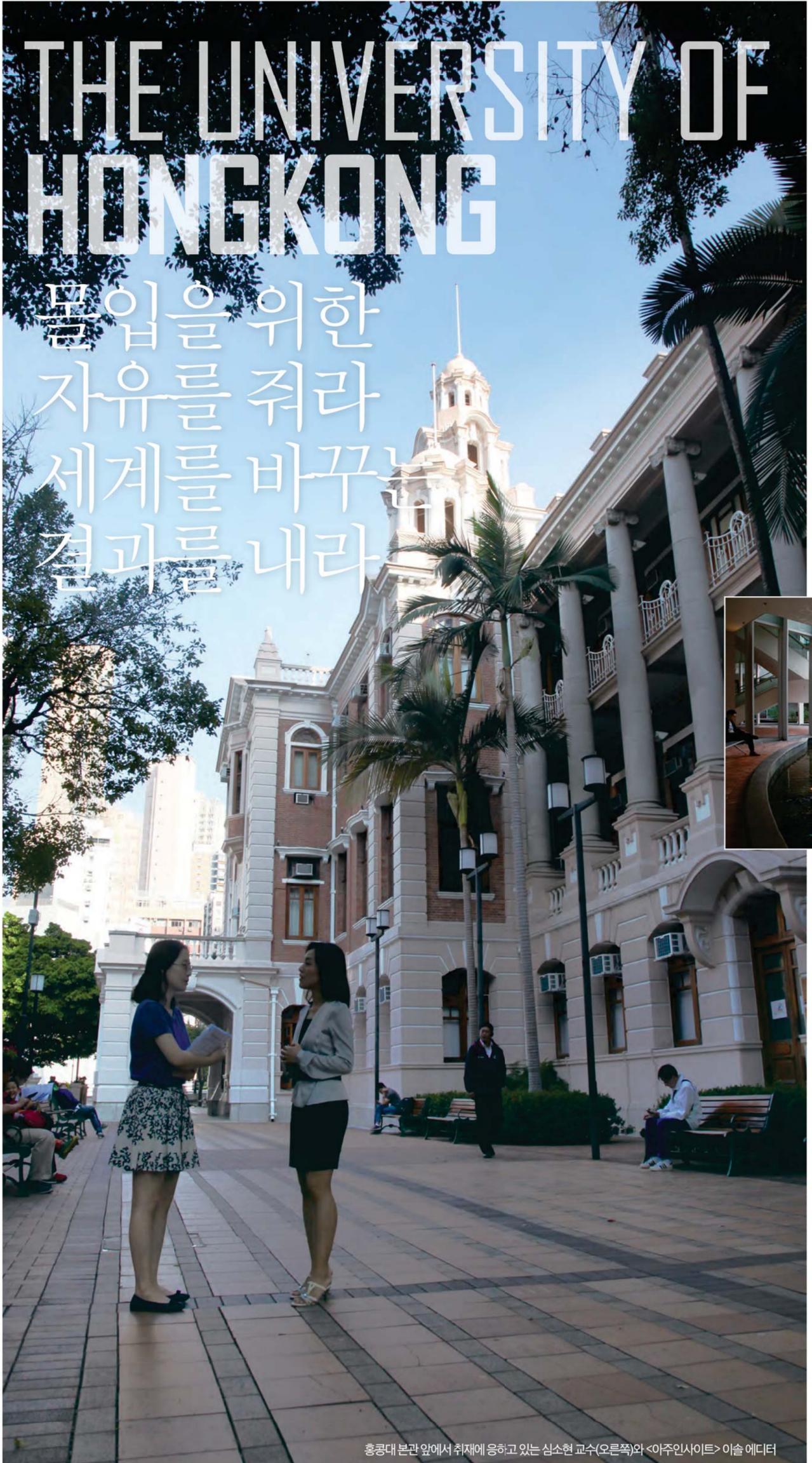


香港大學

THE UNIVERSITY OF HONG KONG

1912년 설립된 홍콩대학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인문대학 3개 단과대학 77명의 재학생으로 출발해 지금은 경영대학, 법과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건축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10개 학부에 재학생 7000여명을 둔 종합국립대학으로 성장했다. 홍콩대학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15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30위를 차지, 아시아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랭크됐다. 홍콩대학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한 사회 기여를 목표로 교수진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논문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인류와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연구 성과를 내놓겠다며 관련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홍콩대 본관 앞에서 취재에 응하고 있는 심소현 교수(오른쪽)와 <아주인사이트> 아슬 에디터

2	2015년 QS세계대학평가 아시아 대학랭킹 2위, Dentistry 부문 세계 2위	99.7%	졸업생 중 취업했거나 석·박사 학업을 이어간 경우 99.7% 홍콩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	117	홍콩대학 교수진 중 전 세계 top 1% 과학자의 수 117명 2015 Thomson Reuters 집계	15/103	1912년 개교 이래 100여년 역사상 재임 총장 수 15명	6.5	교수 1인당 학생 수 6.5명 2015년 기준
---	--	-------	---	-----	--	--------	-----------------------------------	-----	---------------------------

홍콩섬 포퓰람(PokFuLam) 지역의 산 중턱을 깎아 만든 홍콩대학 캠퍼스에는 자유와 활기가 가득했다. 실력 있는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 대학의 오늘이 오고가는 사람과 풍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다. 홍콩대학은 학교의 위상이 곧 교수진의 세계적 명성, 그들이 내놓는 활발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와 직결된다며 유능한 학자를 영입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홍콩대학 경영학과에 합류한 심소현 교수는 교수 개개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대학의 문화가 신진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한다. "박사학위를 마무리할 때부터 한국 대학 보다는 홍콩이 나 싱가포르 대학에 자리 잡고 싶었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 이유였다. 한국 대학에서도 교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기는 질문과 채용 과정을 바라보며 '아, 한국 대학에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접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어차피 계속 영어로 공부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한국어 강의/영어 논문으로 이원화되는 한국의 환경은 부담스러웠다."

심 교수는 1년에 3과목을 가르친다. 그 중 하나는 같은 과목을 2개로 분반하는 수업이라 실질적으로

뿐 아니라, 대학 안팎의 다른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비용에 얽매이지 않고 강의에 필요한 각종 교구 및 콘텐츠를 구입하고,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늘 받을 수 있다.

심 교수는 "말아야 하는 강의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교수가 원하는 경우 강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다"며 "하고 싶은 강의에 대해 대학적으로 틀을 짜 대학 본부에 제출하고, Teaching & Education 센터의 교육학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했다.

유능한 젊은 교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홍콩대학이 벌이는 노력은 전방위적이다. 함께 공부하고 가르칠 '동료'이자 '가족'을 뽑기 위해 전 구성원이 합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 심 교수는 채용 과정 전반이 마치 '함께 하는 공부' 같았다고 전한다.

"학장이 직접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 데리러와 학교로 함께 향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면접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본인 연구에 대한 발표 이후 30분 간격으로 선배 교수들과 1대1 인터뷰를 했고 학장 과도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관으로 자리한 교수들이 내가 제출한 리서치 페이퍼를 아주 면밀하게 읽어보고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깊고 정확한 질문을 던졌고 연구의 발전방향과 공동 연구에 대한 실질적 조언도 줬다. 면접이 끝난 뒤에 학과장으로부터 장문의 이메일을 받

그는 이어 "홍콩과기대학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데, 홍콩대학에서는 홍콩과기대학 교수진들과 공동 연구를 하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라며 "그 성과를 두 대학이 나눠 가진다는 것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공동 연구에 두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덧붙였다.

보다 훌륭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대학은 홍콩 안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니베르시타스 21(Universitas 21)의 창립멤버로 전세계 연구 중심 대학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 유니베르시타스 21은 연구 중심 대학 간의 네트워크로 현재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2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 교수 학생 교류 등에 함께 한다.

홍콩대학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2012년 학제를 변경했다. 영국식 교육 시스템에 따라 기존 3년 이던 학부 교육을 4년으로 늘린 것. 더불어 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을 도입, 학생들이 보다 도전적이며 주체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학부제의 기본 목표는 ▲학문적 직업적 탁월성 추구와 비판적 사고력 배양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리더십과 글로벌 시민의식 배양 등을 목표로 설계됐다. 즉 학생들을 보다 넓고 깊은 인재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대대적인 학제 개혁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보다 학점과 취업에 더 치중하는 문화에 변화를 주겠다는 포부가 반영됐다.

4년제 커리큘럼 실행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신임 교수 채용 과정부터가 '함께 하는 공부' 깊고 명료한 질문에 심도 깊은 연구 방향 조언까지



장년보장 교수 3분의 1에 불과 '성과 채찍' 심하고 연구·강의·학회 '지원 당근' 커

는 2과목을 가르치는 셈이다. 봄 가을 학기 중 교수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몰아서 수업을 하고 한 학기는 통째로 연구에 할애할 수도 있다. 강의가 있는 학기에도 학회나 해외 세미나 참석에 제한이 없다. 오히려 학회 참석을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심 교수는 "한국에 자리 잡은 비슷한 또래의 교수들을 보면 교육과 연구 이외에 잡무 부담이 많다고 들 토로한다"며 "홍콩대학에서는 주니어 교수들에게 연구에 가장 큰 비중을 두라 요구하고, 학과 행정이나 입시 등과 관련된 업무는 부교수 이상의 선배 교수들이 맡아 처리한다"고 전했다.

홍콩대학은 신임 교수 채용 시 3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6년차가 되면 정년보장(tenure) 심사 대상이 된다. 교수 평가는 연구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0%가 교육, 10%가 학생지도와 상담이다. 교수 평가에는 학장과 정교수 뿐 아니라 외부학자가 함께 참여한다. 경영대학에 총 90명 상당의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가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교수 평가가 까다롭다.

평가가 엄격하고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교수들의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학교는 교수들이 연구와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주니어 교수들에게 강의 및 행정 부담을 주지 않을

있는데 여기에는 교수진이 생각하는 연구자로서 나의 장점과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 등이 담겨 있었다."

매년 진행되는 교수 평가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다. 단순히 점수 현황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교수들의 주니어 교수에 대한 연구 피드백과 논문 투고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조언 등이 함께 전달된다. 경험이 많은 선배 연구자들이 후배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교수진의 역량이 동반 성장하는 것

교수진 간의 협력은 홍콩대학 울타리 밖에서도 유효하다. 학교에서 교수진에게 적극적으로 학교 안팎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라고 권하는데, 이는 세계적 명문 대학뿐 아니라 홍콩 내 다른 학교들과의 협력에도 적용된다. 홍콩이라는 지역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며, 개별 대학의 평판도와 성과도 중요하지만 홍콩 대학 사회 전체의 발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덕분이다.

심 교수는 "각 대학의 지원을 받아 홍콩대학과 홍콩과기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시대학, 홍콩폴리텍대학에 소속된 같은 전공의 교수들끼리 매달 1회 세미나를 한다"며 "하루 종일 6개 테이블로 나누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가 발표하고 질문을 한다는 고정된 틀 없이 그저 자유롭게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있는 홍콩대학 그레이 린드그렌(Gray Kochhar-Lindgren) 교수는 대학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깊이 있고 보다 더 현실 사회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더 넓고 유연한 시각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대학은 학제 개혁과 함께 '커먼 코어(Common Core)'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커먼 코어'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분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조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해진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크게 불 때 ▲사회적 기술적 현안 ▲인문학 ▲글로벌 이슈 ▲중국의 문화와 사회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빅데이터, 젠더와 사회 등의 아 이템을 다룬다. 120~180시간 동안 진행되며 6학점이 부여된다.

린드그렌 교수는 "커먼 코어 프로그램 대부분의 이슈는 환경, 생물정보, 중국학 등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실제 관련이 있는 주제"라며 "대학 캠퍼스와 도시를 가로지르는 주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객관화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커먼 코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는 전시회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홍콩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을 위해 오픈된다. ④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는?

리더십이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리더의 비언어적 행동, 그 중 시선맞춤(eye contact)이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썼다.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인지 리더가 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다. 리더의 가치관과 조직원을 대하는 법, 그리고 리스크와 실패에 대처하는 법은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지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브라이언 구니아(Brian Gunia) 교수와 함께 조직원의 실패에 대한 대응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홍콩대의 특징적 수업 분위기가 있는?

홍콩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중간이라고 보면 된다.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더 익숙하고,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에서 교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감히 있는 틀을 깨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지금 학부에서 50명 규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형태의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나는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본격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학생들이 구체적 과제를 먼저 체험하도록 하거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다.

교수진의 성과에 대한 기준이 높는데, 그에 따른 부담은?

승진을 생각한다면,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교수평가에서 교육 보다는 연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내 또래의 주니어 교수들이 모이면 그런 달레 마를 많이 토로한다. 재미있는 강의를 하고 싶는데, 거기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다. 특히 경영대학 같은 경우 MBA 수업 비중이 큰데, 학부 보다 훨씬 강의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때문에 3년까지는 MBA 수업을 먼저 배우고, 선배 교수들이 MBA 강의를 주로 맡는 편이다.

심소현

홍콩대학 경영학부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박사 2014
연구 분야: 리더십, 조직행동론,
조직 위계와 문화



비즈니스 **모든 사람에게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비결이다**
남들에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동경이 아닐
-이문기-

사회적 이동성 제고 - "AFTER YOU" 프로그램
Social Mobility 철학을 기반으로 어려운 환경 탓에 해외연수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경험을 제공, 재원은 취지에 맞게 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기부로 마련한다.

SPECIAL ASIAN BIG4 REPORT

아시아 명문대는 어떻게 글로벌 명문대가 되었나?
〈이주인사이트〉 특별취재 ③ 싱가포르국립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은 1905년 재학생 23명의 의과대학으로 시작해 110년 만에 3만8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아시아 대표 대학으로 우뚝 섰다. 이 대학에는 16개의 학부, 26개의 대학 부설 연구소, 3개의 국책 연구소가 속해 있으며 캠퍼스는 세 곳에 나뉘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싱가포르국립대학 소속 교수진 2400여명은 7300건의 논문을 펴내고 519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350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 선정 세계 대학 순위에서 올해 1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국립대학은 2014~2015 2년 연속 아시아 대학으로서는 가장 높은 QS 순위를 유지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대대적 혁신을 통해 평범한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올라섰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아시아 1위 대학 그 놀라운 도약 뒤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과 대학의 높은 신뢰가



NUS를 넘어 싱가포르가 자랑하고 있는 경영대 앞에서 이 대학 조승규 교수가 학교의 발전상을 〈이주인사이트〉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1 2014-15년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대학랭킹 연속 1위 세계 12위 **3308** 외국인 교원수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10개 대학 기준 최다 **30** 매년 전체교수의 30% 이상이 종신교수 심사에서 탈락 **5427** 외국인학생수 QS 세계대학평가 상위 15개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수 **7/110** 1905년 개교 이래 재임 총장수 7명

싱가포르국립대학은 최근 2년간 QS 평가 아시아 1위 대학에 올라있다. 이 대학 경영학부의 조승규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다. 그 이전에는 국립대학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기본 목표에 충실한 학교였다. 1990년대 중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교육을 '산업으로 키운다'라는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이 수립됐고,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가장 먼저 개혁이 시작됐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2001년 기존 체계를 뒤엎는 개혁을 시작했다. 교수들의 연봉과 승진체계를 바꿨다.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되던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고 성과급은 최대 3개월 치 월급으로 정했다. 재직 연한만 채우면 되던 승진의 기준은 '성과'로 바꿨다. 조교수로 채용된 후 9년간 테뉴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 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매년 전체 교수의 30% 이상이다.

이 대학 탄 초 추안(Tan Chorh Chuan) 총장은 "교수 사회가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바뀐다"며 "우수한 교수를 우대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니 해외의 유명 석학들을 모셔오기 수월한 환경이 됐고,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와 강의

해(桑田碧海) 수준의 변화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그는 "학과장과 학장에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 교수를 영입, 교수 채용에 전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경험 많은 학자들을 스카우트, 젊은 연구진의 '멘토' 역할을 맡게 했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학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누구도 국적을 묻는 적이 없을 정도로 교수진 채용은 그야말로 글로벌 마인드로 진행된다.

조 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을 쓸어가듯 영입했고, 급기야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의 훌륭한 젊은 연구자들이 알아서 몰려들어오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대우를 해준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환경이라 입을 모은다.

훌륭한 교수진이 포진하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속되자 교육의 질도 자연히 높아졌다.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싱가포르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현지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 대학들은 보통 3년 과정인데, 4년을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우수 학생(honor class)으로 마지막 1년 동안 학사 논문을 작성하게 되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온라인 강의를 융합한 '기술기반학습(technology-enhanced learning)'도 확대했다.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 강의들의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온라인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강의실에서 보다 더 밀도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

경영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해외 인턴십 ▲중소기업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해외 인턴십은 학교와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들과 연계, 재학생을 선발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당 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인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신입사원처럼 직무를 받아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지원이 매우 활발하다. 참가자 선발도 매우 엄격인데, 성적 뿐 아니라 추진력과 도전정신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중소기업 컨설팅은 학부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직접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학교에 신청하면 교수와 학생들이 팀을 꾸려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시에 나선다. 당초 경영대학원(MBA)에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현장 경험과 현실 적용 능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학부로 확대됐다.

탄 초 추안 총장은 국내외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전에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2~3군데의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평균 5곳 이상의 직장을

▲ 한국 대학들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해 조언한다면?

싱가포르 동료 교수들 중 한국 대학으로 스카우트되어 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몇몇 있다. 다들 입을 모아, 학교 안에서는 생활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들 한다. 싱가포르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 이기에 외국인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 전반적 환경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자를 영입하고 성과에 대한 압박은 주는 데 비해, 다른 교수들과의 협력과 융화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외국인 학자들이 정착하기 쉽지 않다. 학칙과 규정 등의 문제로 연구자가 요구하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어려운 것도 지적하고 싶다.

▲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타 소견은?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강력하고 중앙집권체제가 확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자국 대학들의 더 큰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자체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일례로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을 2000년 설립,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영학부와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과 4년간 계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하고, SMU의 연봉을 더 높게 책정했다. 연구 환경도 좋았다. SMU 설립 10년 후, 두 대학의 경쟁력은 함께 성장했다.

▲ 한국 대학들이 싱가포르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

싱가포르대학을 비롯한 이곳 대학들은 체적과 당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한국 대학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영대학의 한해 예산이 웬만한 한국 대학의 1년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 현재로서는 한국적 환경에서 가능한 제3의 길을 찾길 권한다. 여기서도 지금 한국과 한국 대학의 분위기에서 대학과 교수진이 내고 있는 아웃풋에 놀라워 할 때가 많다. 안타까운 건 이 성과는 개인의 역량에만 기대온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대학이 저마다 개혁에 성공, 시스템 자원이 가세된다면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된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인적 구성이 더욱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 초기준체제 전복수준의 대개혁 "교수사회 바뀌면, 모든 것 자연스럽게 바뀐다"



테뉴어 탈락 교수 매년 30% 이상 국가적·사회적 신뢰가 광범위하게 뒷받침

의 질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의 이러한 성공은 리관우상장 집권 시부터 확실하게 뿌리박게 해 놓은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싱가포르 사회와 국민들의 신뢰가 그 기반이었다. 싱가포르 한 대학에 재직했던 어느 교수는 "싱가포르 교수 수준이 매우 높은 건 인정할 만한 사실이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유수의 기업 인력, 그다음이 교수라고 할 정도"라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교수는 대학본부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사실상의 모든 결재권을 지닌 단과대학장에 대한 신뢰 역시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밑바탕과 일차적 개혁성과 이후, 세계 수준의 대학을 키워내겠다는 정부의 집념과 지원에 힘입어 싱가포르국립대학은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의 '블랙홀적 영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2~3배 연봉을 보장하면서도 강의는 더 유연하게, 연구 활동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자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학자들이 하나둘씩 터를 잡았다. 구심점이 생기자 젊은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강해졌다. 5년 만에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학교의 문화도 180도 달라졌다.

2000년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 전공 교수로 합류한 조 교수는 지난 15년 사이 이 대학에 상전벽

있다"며 "학사 논문 심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논문의 수준이 높아 놀란 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의 잠재력이 우수하지만, 싱가포르 교육의 특성 상 학생들이 여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많다"며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늘 교수의 말을 받아 쓸 준비가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수강인원 300명에 달하는 학부 대형 강의를 맡았던 경험을 조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주일에 2시간 교수가 대형 강의를 진행하고, 매주 1시간은 15명 정도씩 조를 나누어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튜토리얼(tutorial)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특정 사례를 주고 토론과 발표를 통해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학생들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답만 좀 알려 달라'는 요지의 메일이었다. 교수가 답을 제시해주면 그 과정과 풀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싱가포르 학생들이 어떤 식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전교적으로 여러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지필 고사 비중은 50% 이하로 하고, 수업에서의 공헌도 즉 팀 프로젝트나 개인 발표 등의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

경험한다"며 "이 말은 대학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세계화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 집중해 가르치기 보다는 기본 소양을 넓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스스로 커리어를 설계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최근 미국 예일대학(Yale University)과 함께 리버럴 아트 칼리지(The Yale-NUS College and Liberal Arts Education, 이하 Yale-NUS 칼리지)를 설립하고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내에서 리버럴 아트 칼리지 설립은 최하다.

Yale-NUS 칼리지는 예일대학의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도입해 '교양 교육'을 두루 가르치기 위한 대학으로 2013년 8월 첫 신입생 15명으로 출발했다.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레지덴셜 칼리지 유형이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은 Yale-NUS 칼리지를 설립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돕고 ▲소규모의 수업을 통해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 교양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전공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보다 넓은 교육을 지향하며 마련된 14가지 유형의 공통 커리큘럼은 ▲문학과 인문학 ▲철학과 정치사상 ▲사회학 ▲기초과학 ▲역사학 ▲경제학 등이다. ●



조승규 싱가포르국립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박사 2000
연구분야: 게임이론, 산업조직론,
전략적 무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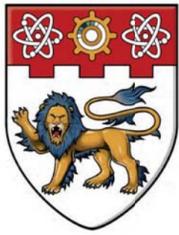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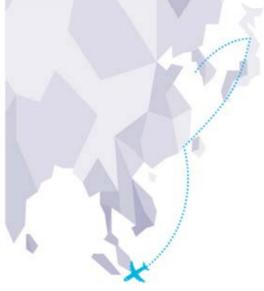
즐거움 마음으로 하면 일이 즐겁다
일이 즐거우니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

국내 최초, 학생 중심 원스톱 행정서비스
1990년대 '학생중심대학' 선언 이후, '아주서비스센터' 설립.
국내 최초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아주대학교.

SPECIAL ASIAN BIG4 REPORT

아시아 명문대는 어떻게 글로벌 명문대가 되었나?

<이주인사이트> 특별취재 ④ 난양이공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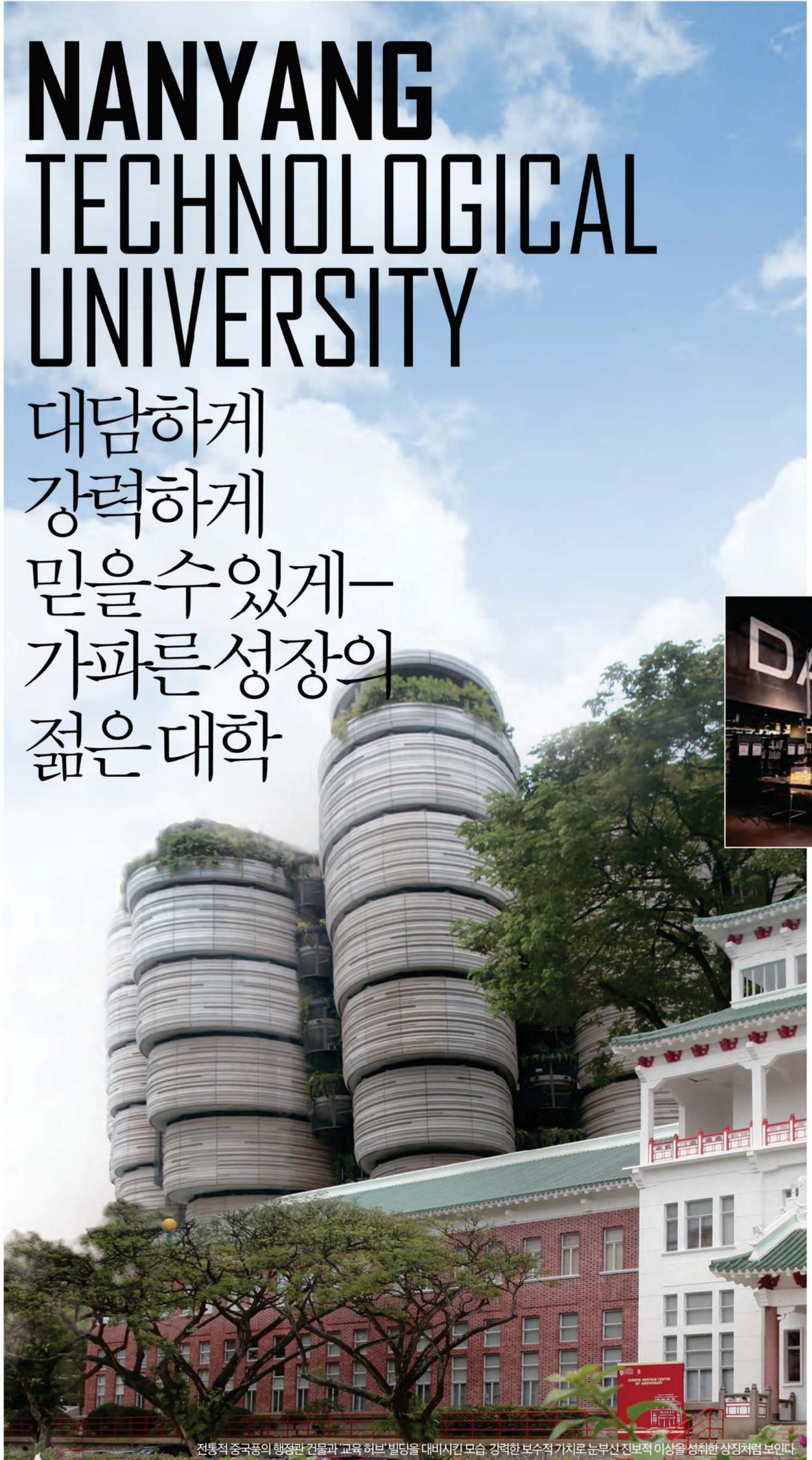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난양이공대학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수준의 대학 가운데 하나로 최근 '아시아의 MIT'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0년 QS 세계 대학 순위 74위를 기록했던 난양이공대학은 지난해 39위, 올해 13위로 뛰어오르며 급부상했다. 올 3월 QS는 난양이공대학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젊은 대학'으로 꼽기도 했다. 설립 50년이 채 되지 않은 세계 대학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난양이공대학에는 3만3000여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세계 80개국에서 온 4300여명의 교수진이 몸담고 있다. 이 대학의 급성장엔 '2B' 즉 탄탄한 인프라(Brick)와 탁월한 교수진(Brain)이 갖춰졌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는 강력한 리더십과 꾸준한 정책 추진이 빚어낸 성과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대담하게 강력하게 믿을수있게- 가파른 성장의 젊은 대학



전통적 중국풍의 행정관 건물과 '교육 허브' 빌딩을 대비시킨 모습. 강력한 보수적 가치로 눈부신 진보적 이상을 성취한 상징처럼 보인다.

4 2015년 QS세계대학평가 아시아 대학랭킹 4위 세계 13위

5C NTU는 이래야 한다 NTU의 5가지 공유가치 *5C character 인력/creativity 창조/competency 역량/communication 소통/civic mindness 시민정신

1 학술 인용 영향력 아시아 1위 2014 Thomson Reuters

5+ 아시아 최초 QS스타평가 5+ 등급 획득 8개 항목 평가에서 별5개를 만점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3/24 1991년 개교 이래 재임한 총장 수 3명

캠퍼스를 돌며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 버스에서 내려 공과대학 건물에 들어서자 한쪽 벽에 교수진의 연구실을 알려주는 알람판이 눈에 띈다. 한국인 교수의 이름 몇몇을 포함해 한눈에 보기에도 교수진의 구성이 다채롭다. 난양이공대학이 전세계 신진 연구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광경이다.

난양이공대학은 유능한 연구자 영입에 적극적이다.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이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대표적 제약회사 애벗 래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1년 난양이공대학 분자생물학과 창설 멤버로 합류한 윤호섭 교수는 난양이공대학에서는 한국적 현실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투자와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세계적 성과를 내는 학자에게 기존에 받던 연봉의 2~3배를 제시, 영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연구비는 100만불(11억원) 단위로 지원된다. 교수진의 연봉 체계가 매우 총중하다. 능력 있는 조교수라면 정교수보다 많은 연봉을 가져갈 수도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다 난양이공대학에 합류한 조남준 재료공학과 교수는 이 대학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가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이 전세계 우수 연구자를 모셔오기 위해 마련한 'National Research Founda-

tion'에 유망한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윤호섭 교수는 "부교수 승진 심사에 들어가는 조교수들의 경우 논문 50개는 기본이고 100개, 200개 논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며 "200만불(22억원) 이상의 연구비 수주, 주요 논문, 박사 졸업생 수 등이 평가 항목"이라고 전했다.

정교수 승진 과정은 이보다 더 까다롭다. 정교수 심사 대상이 되는 부교수들에게 학교가 지원서를 내라는 제안을 하고, 지원서를 제출한 교수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정교수로 임용한다.

윤 교수는 "심사에 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전세계 학자 10명에게 받게 되어 있는 추천서인데, 지원자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연을 맺지 않았던 중립적인 학자만이 유효한 대상"이라며 "각 분야에서 전세계 top 5 수준의 학자들을 비교 대상으로 해 정교수를 승진을 결정하며 그간 발표한 논문이 그 분야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는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교수진에게 우수한 연구 성과를 요구하지만, '교육'은 여전히 이 대학이 최우선시하는 과제다. 강의와 학생지도는 교수의 기본 요건이라는 신념이 깔려 있는 것. 정년이 보장되는 부교수 승진에서 요구되는 100페이지 상당의 서류 가운데에도 ▲교수 본인이 직접 서술한 교육 철학과 ▲그간 진행해 온 학생 지도성과 및 주요

"최근 노벨상 수상자의 가장 큰 특징이 활발한 학제 간 융합"이라며 "융합 연구에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다른 분야의 학자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섭 교수는 "1991년 종합대학으로 재탄생한 난양이공대학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 총장은 3대 총장에 불과하다"며 "유능한 리더를 영입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난양이공대학의 가파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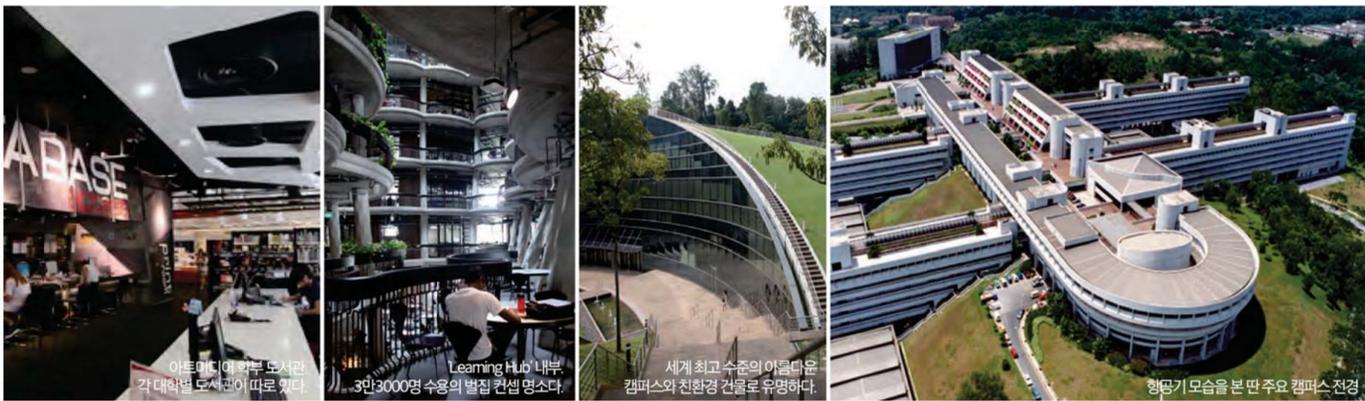
그는 "아카데미 거버넌스가 워낙 탄탄하기에 총장과 부총장(provost)이 결정한 바에 대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동참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며 "학과장과 학장들이 학과나 단과대학 내 인사와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유능하고 젊은 학자를 키워주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 대학의 발전을 가능케 한 요소 중 하나다.

베르틸 안데르손 난양이공대학 총장은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매우 대담하고 강력한 지원,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우리 경영진의 신념이 난양이공대학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나를 비롯한 우리 대학 리더들에게 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국내외에서 새로운 교수진을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난양이공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BMW,

"대학다운 철학과 분위기 살아넘쳐" 전세계 상대 '명품급' 교수대대적 영입



이동 미디어 캠퍼스 도서관, 각 대학별 도서관이 따로 있다.

Learning Hub 내부, 3만3000명 수용의 발집 컨셉 명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캠퍼스와 친환경 건물로 유명하다.

형용기 모습을 본 딴 주요 캠퍼스 전경

승진 심사용 논문만 50~200편 글로벌 기업 연구소 캠퍼스내 즐비

tion, NRF 과학자 중 한 명인 덕택이다. 싱가포르 국가 연구재단은 매년 우수한 연구를 시작하는 학자 10명 정도를 국적에 관계없이 선발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난양이공대학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학들은 이렇게 선발된 연구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또 한 번 경쟁을 벌인다. 조 교수는 난양이공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월급 이외에 순수 연구비용으로만 5년간 370만달러(43억원)를 보장 받았고 'Nanyang Associate Professor'라는 특별 직책을 받았다. 또 부임 후 3년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남준 교수는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 지원 과학자로 선정되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내가 몸담을 대학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주저 없이 난양이공대학을 선택했다"며 "총장의 철학과 대학의 분위기가 무척 역동적이어서 마치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 같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난양이공대학에는 연구자의 전략과 리서치 방향에 따라 그에 맞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다"며 "아시아 대학 가운데 이러한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은 난양이공대학이 유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및 평가 시스템 역시 매우 엄격하다. 교수 평가에는 교육과 연구가 같은 비율로, 학교에 대한 공헌이 일부 반영된다. 정교수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교수의 강의는 녹화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제공되기에 강의의 질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윤 교수는 "교수법과 프리젠테이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들에게는 학과장과 학과장이 외부 전문가의 1:1 지도를 받도록 권한다"며 "이는 단순히 권고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통해 드러났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했는가 하는 것은 승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난양이공대학이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아카데미 거버넌스(Academic Governance)' 덕분이라는 게 대학 안팎의 분석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노벨재단에서 활동해 온 화학자이자 스웨덴 Linköping 대학 총장을 역임한 베르틸 안데르손 교수를 2007년 영입, 2011년 총장으로 임명된 뒤 그를 비롯한 학장들이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개혁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학의 첫 번째 외국인 수장인 안데르손 총장은 난양이공대학이 우수 연구자를 적극 영입하고,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히 힘써왔다.

그는 2013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난양이공대학을 대표하는 교육철학은?

최근 '5C'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션을 수립했다. 어떠한 졸업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덕망 높은 품성(Character) ▲창조 정신 함양(Creativity)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Competency) ▲소통형 인간(Communication) ▲시민정신 고취(Civic-mindedness)가 그것이다.

교육 부문에 새롭게 중진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다.

온라인 공개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양이공대학에서도 전세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강의를 만들고 있다. 교수가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녹화하고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지금 이 작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학교에서 각 3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대학들에 전하고픈 조언은?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바닥이다. 한국 명문대학의 3~4학년 학생들이 이곳 1~2학년 수업을 듣는데도 성적이 저조하다. 이유는 영어다. 한국 교환학생들이 적은 답안지를 보면, 해석이 어려울 지경이다. 지금 한국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많이 하는데, 효용성이 의문이다.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일 뿐 '강의를 영어로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고 본다. 글로벌화-영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어떠한 정보도 웹상에서 공유할 수 있다.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진정한 국제화다.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커리큘럼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면 좋겠다.



윤호섭 난양이공대학 생물학부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 박사 1993
미국 애벗 래버러토리스 연구원 1993~2002

IBM이나 롤스로이스, Bosch 같은 기업들의 연구소를 캠퍼스 내에 유치해 기업체 소속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며 교수들과 함께 연구한다. 학생들 역시 실제 기업들의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생생한 지식을 얻어가며, 취업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학과 기업, 정부 간의 협력이 긴밀해 매칭 펀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산학협력을 활발케 하는 배경 중 하나다.

조남준 교수는 "BMW나 보잉과 같은 기업이 300억원을 내놓으면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매칭 펀드가 활발하다"며 "또 'NTU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학교 안에 포진, 특허 출원이나 스타트업 설립을 비롯한 산학협력의 전과정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베르틸 안데르손 총장은 난양이공대학이 글로벌 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는데 대해 "물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산학협력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나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책으로만 익히는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직업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①

'ASIAN BIG 4 REPORT' 취재 및 인터뷰
남경호 초빙교수 이슬 에디터
취재 도움 및 촬영 이재희
진행 정우준 디렉터

기초한것에서
위대함
이 나온다
이 시작은
뜻깊은
뜻깊은
뜻깊은



ASIAN BIG4 Presidents' Message

우리는 '대학 발전'을 이렇게 본다

*이 코멘트는 각 대학의 총장들의 언론 인터뷰, 출판 및 홍보물,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인류 발전급연구와 글로벌 리더를 향해-

우리 대학은 전 세계의 축소판을 지향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한 코스모폴리탄 대학으로, 남다른 역동성을 지녀왔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적 명성이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교수들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걸음 앞서기 위해 다재다능하고 창조적이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유연하고 넓은 커리큘럼을 통해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리더십 배양과 풍부한 국제 경험을 중단 없이 쌓는 것도 요구한다.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사업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기업가- 젊은이의 미래를 그려갈 공간의 창출, 그것이 우리 대학의 발전 모티브다.



고정관념과 관습의 타파- 발전의 시작이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글로벌사회다. 우리는 지식기반 사회라는 것이 '지성의 힘, 강인한 체력, 도덕적 윤리'를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파악한다.

글로벌 사회는 교양과 과학에 기반한 인재를 원한다. 그간의 모든 고정관념과 관습으로부터 탈피한 국제적 시각과 소양을 갖춘 아키타인의 배출을 위해 강력하고 고유한 국제교양교육(international liberal arts education)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유지와 개발, 그리고 적용을 위해 '아키타식'의 탄다운 리더십을 실험했고, 성공했으며, 유지시켜 갈 것이다. 이런 방침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키타대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동시에 요구한다. "내가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화두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학생을 키우는 게 곧 우리의 발전이다.



발전 목표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을

우리의 발전에는 항상 '사람(People)과 문화(Culture), 그리고 목적(Purpose)'이 자리 잡고 있어왔다. 이러한 가치는 싱가포르국립대학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대학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우리 학생과 사회, 전 지구적 커뮤니티를 위한 독특하고 뛰어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는 사회의 진보와 혁신을 이끌어갈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이뤄온 눈부신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대학 전반에서 '탁월성(excellence)'을 추구하고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 넘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모든 구성원과 그룹, 부서와 단과대학이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것은 대학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미래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발전 목표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과 이를 이뤄내겠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기에 우리는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자유와 책임의 요구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갈 것-

우리는 '기회, 책임감, 그리고 진보'를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홍콩대학은 이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 밖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한다.

자유로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바탕 위에 끝없이 이상을 추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것이 대학의 변함없는 발전 목표이자 동력이어야 한다.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크다. 우리 대학은 그런 자유와 다양성의 보장과 결과로 성장해 온 곳이다.

이런 우리들의 발전에 대한 희구가 홍콩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아시아 명문 대학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수긍할만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목표 지점이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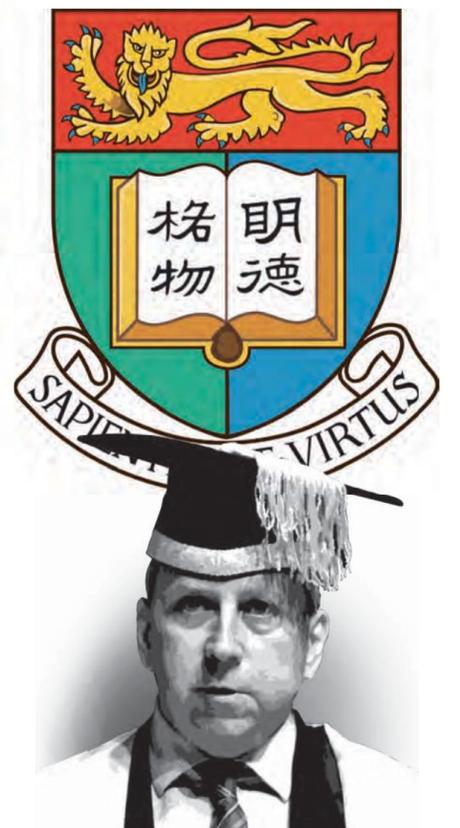
Bertil Andersson, 난양이공대학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총장



Norihiko Suzuki, 아키타국제교양대학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총장



Tan Chorh Chuan, 싱가포르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총장



Peter Mathieson, 홍콩대학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총장

Ajou 10 Greative
아주인의 열 가지 약속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더이상 배우지 마라!
사치다.

내가 만드는 대학 - 도전학기제

성인의 고고함을 동경하지 마라!
세상은 언제나 저잣거리에서 일낸다.

Location Premium - 경기과학벨트 산학중심대학

홀로 세상에 돋보일 것인가, 함께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합치는 만큼 커진다!

Killer Zone - 강점융합연구

번듯한길 한켠에는 멋진 오솔길도 있다.
세상은 외길이 아니다!

또 하나의 전공 - 트랙 FIVE

모자람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다.
남음에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동정일 뿐!

사회적 이동성 제고 - "AFTER YOU" 프로그램

세계는 스펙국제화가 아니라, 마인드 국제화로 통한다.
Act Now!

취 · 창업형 국제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어라!
어울림이 큰 울림이다.

빛나는 눈빛, 따뜻한 가슴 - Ajou Integrity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라!
그러면서 거인이 되어간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 Flipped Learning Class

잡초처럼 짓밟혀라!
바람이 일으켜 준다.

인간존중 · 실사구시 · 세계일가 장학제도

사소한 것에서 위대함이 나온다!
아주 작은 씨앗이 우주를 품듯이.

스타트업 플랫폼 대학 - Ajou Creative Town

creative for great
GREATIVE
GREATIVE는 진짜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GREATIVE다
비록 더 크게 크게



BMW 인턴십_ 김선규(e-비즈 4)

2015년 여름 글로벌 인턴십 신청을 했던 게 엇그제 같다. 어느새 독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꿈인지 생인지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나는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에서 각각 2,3개월씩 근무했다. 요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스스로를 실감한다.

BMW코리아에서는 After-Sales 기술지원팀에 소속되어 자동차 리콜 및 대관업무를 보조했다. 독일 본사에서는 아예 및 남아공을 담당하는 Area Management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품소 체험할 수 있었다.

BMW에서 일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턴들도 대부분의 미팅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덕분에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었다. 나의 경우 i시리즈 future plan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관련 미팅에 꾸준히 참석했다. 인턴들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인 Stammtisch(Stand a table)도 인상적이었다. 본사에만 200여명의 인턴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뭇친 사내 및 BMW 박물관, 공장 투어 등을 함께 한 뒤 자유롭게 식사와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이 절실히 느낀 것은 영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일하고 싶은 나라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적극성을 가지고 일 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생각한다.



CKP 인턴십_ 노화정(e-비즈 4) · 김형준(경영 4)

내가 일하고 있는 CKP회계법인인 미국 내 아시아계 회계법인 중 가장 큰 회사다. 총 9개의 오피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조지아, 뉴저지, 뉴욕, 텍사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그중 나는 샌디에고 오피스로 발령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일했다.

단기 인턴십이지만, 단순 보조인력이 아니라 회사 업무의 한 파트를 맡아 직접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느끼는 바도 참 많다. 미국의 큰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여러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 리뷰 서비스 진행과정 등을 익히고 얼마 전에는 멕시코로 출장을 가 Dorco America라는 기업의 리뷰서비스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곳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은 회계 관련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공한 고객들, 그리고 다른 오피스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큰 자산이 되어주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멈춰있던 나를 다시금 전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글로벌 인턴십은 평화롭기만 하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줬다. 스펙 쌓기-국내 취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내 꿈이 한층 크고 넓어졌다. 또 훌륭한 선배로 성장해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모교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도 자라났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린다.



KOTRA 인턴십_ 이슬기(e-비즈 4)

4학년 1학기 취업준비로 바빴던 나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스펙쌓기'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 원래 도전적인 성격도 아니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외국 생활과 영어에 흥미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더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싶었다.

인턴십에 합격하자마자 핀란드 헬싱키 코트라 무역관에서 연락이 왔다. 일주일 뒤 출국하라는 통보였다. 갑작스런 연락에 두려움과 설렘, 걱정이 몰려왔다.

무역관 인턴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번역과 보고서 작성, 수출 상담회 준비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이론 공부와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우는 바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무역 사절단을 맞이했다. 수출 상담회 준비를 하면서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상담회를 마치고 참가 기업 대표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외 사절단으로 나간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다.

해외 인턴십을 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일단 저질러 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 역시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는 매일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경험을 알기에 내일이 기다려진다. 해외 인턴이라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다. 그렇기에 더 설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된다. 내가 바라던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고 행운이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유쾌한 반란 Global Internship



지난 6월 김동연 총장 발의로 시작된 아주인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 '유쾌한 반란 글로벌인턴십' 그리포트와 신규 모집 요강!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나에게로- 아주 '유쾌한 반란' 겨울인턴십에서!

1.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글로벌 청년 예비창업가'
 - 모집 유형: 개인 창업형/기업 연계 창업형
 - 합격자 선발: 2015년 12월말
 - 활동 기간: 2016년 1월중 파견 예정 (6개월 과정, 유망 창업 아이템 개발 시 6개월 연장 가능)
 - 혜택: 6개월간 체류비 지원(월 1000달러) 캄보디아 전문가 그룹 멘토링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주도 트레이닝

신혜림(경영 2015년 졸업) KOTRA 인턴십, 인도 파견



KOTRA 인턴십 _ 박건희(e-비즈 4)

나는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에 파견을 나와 있다. 무역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에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실리콘밸리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을 돕는 일을 한다. 인턴십에 합격하고 나서 드라마 <미생>을 흥미롭게 봤다. 그 중 출근 첫 날, 장그래와 상사인 김동식 대리가 옥상과 복사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직장경험이 있느냐, 회화능력이 있느냐, 심지어 복사기 한 번 안 써봤느냐는 상사의 질문에 장그래는 차마 대답조차 못하고, 그런 장그래에게 김동식 대리는 '26살 먹은 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기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느냐고 말한다. 나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학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필요한 소소한 내용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기에 나는 인턴이라는 학생과 직장인의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평범한 경영대 학생이었던 나는 3학년 1학기, 교환학생으로서 리투아니아로 갔다. 특이한 룸메이트들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스스로 꿈꾸는 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실감한 나는 바로 호주로 떠나 일하며 놀며 배우다 돌아왔다. 그 시간을 거친 뒤 비로소 '해외영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곳까지 왔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긍정적 마인드로 무장하여 스스로 원하는 바를 좇아간다면, 분명 그 노력에 대한 답은 돌아오리라 믿는다.



BMW 인턴십 _ 김도영(경영 4)

지난 여름 '유쾌한 반란, 글로벌 인턴십' 포스터를 보고, 많은 프로그램 중 BMW에 눈길이 쏠렸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BMW 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 그리고 학교의 파격적인 지원 - 도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BMW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어필한 결과,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BMW코리아에서는 After-Sales팀 소속으로 2개월간 근무했다. 기업이라는 큰 조직의 흐름에 대해 익힐 수 있었고 프리젠테이션, 미팅, 회식 등을 경험했다. 회사 생활이 처음인 나로서, BMW코리아는 '최고의 출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독일 본사로 넘어가서는 Finance팀 소속으로 3개월간 근무했다. 독일어를 하지 못해 불편했지만 동료들이 나와 대화할 때는 영어를 사용해주었기에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다. 한국과 가장 달랐던 점은 근무환경이었다. BMW 독일 본사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하루 7시간 근무만 하면 된다. 오늘 한 시간 더 일했다면 내일 한 시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시간 자체가 유연하다. 금요일이면 주말을 위해 다들 오후 3시경에 퇴근했다. 팀 분위기가 화목하고 사적인 대화도 활발했지만 일할 때는 엄청나게 프로페셔널하고 철저했다.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덕에 직원들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 높았다. 환경이나 문화는 다르지만, 다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방식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다. 5개월의 특별한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사회에 훌륭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OKTA 인턴십 _ 신혜림(경영 2015년 졸업)

2015년 7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쯤, 너무나도 기억에 남을 내 인생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 인도에 위치한 Koindo Trading Pvt. Ltd. 무역회사에서 3개월의 인턴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일하게 된 회사는 한국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였다. 인도 유명 화장품 회사에 상품의 컨셉이나 시장 진행 상황 등을 브리핑해주고 촬영을 보다 원활하게 돕는 것이 내 주된 업무였다. 하루는 화장품 회사에서 생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매우 부끄러워하던 나였지만, 용기를 내어 선택 응했다. 쇼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내가 출연해 판매했던 화장품은 여전히 화장품 1위 제품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 어느 나라나 타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도에서는 당혹스런 상황을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된다. 여러 가지 대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고될 때도 있었다. 바쁜 가운데 쉬는 날은 여행을 통해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회사 밖의 인도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시끌벅적한 인도뿐 아니라 평화롭고 신비로운 모습의 인도도 경험할 수 있었다. 후배들도 새로운 환경에 겁내고 주저하기 보다, 용감하게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2. KOTRA 해외무역관 인턴 프로그램

- 근무지역: 일본(오사카)/미국(실리콘밸리)
- 파견시기: 2016년 상반기
- 파견기간: 6개월
- 혜택: 아주대 현장실습수업 운영 규칙에 따라 최대 12학점 인정, 아주대 LINC사업단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3. World-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브릿지 인턴십

- 내용: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대상 기업지원 활동, 국내_해외기업 지원 브릿지 활동 → 해외_현장실습 참여
- 브릿지 활동 기간: 2016년 1월중 3~5주
- 해외 현장실습 기간: 2016년 2월중 4~8주(학점이수형)
- 혜택: 글로벌 현장실습지원비 200만원 지원, 현지 문화 멘토링



김선규(e-비즈 4) BMW 인턴십 독일 파견

Global Alumni Message

PURDUE UNIVERSITY

세상에 완벽한 준비 후의 출발이란 없다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

이지환 동문/산업공학 99학번



퍼듀대학교 총장과 함께



퍼듀대학교 실험실에서 이 동문 모습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주대에서 산업공학과 기계공학을 복수전공한 이지환 동문은 2005년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스탠퍼드대학 기계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재료공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다. 지난 8월부터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공립대학인 퍼듀대학(Purdue University) 공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미국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교수로 임용됐지만 그의 미국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보통의 미국 학생들보다 2-3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많이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가는 듯한 막막함과 외로움을 헤쳐 나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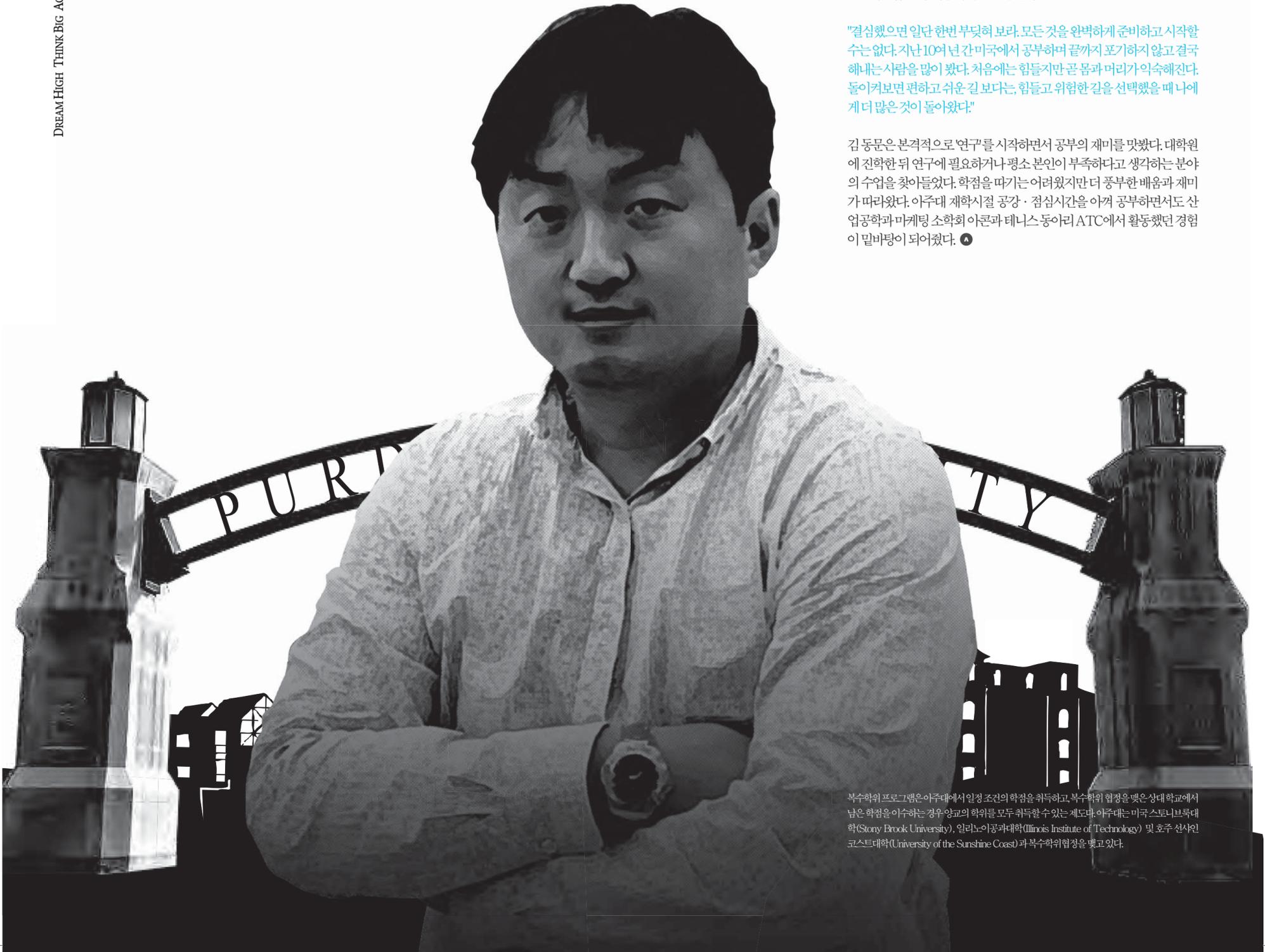
언어에 대한 부담과 재정적인 문제, 불확실한 진로 등 여러 문제로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는 말한다.

"결심했으면 일단 한번 부딪혀 보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는 없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해내는 사람을 많이 봤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곧 몸과 머리가 익숙해진다. 돌이켜보면 편하고 쉬운 길 보다는, 힘들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 게 더 많은 것이 돌아왔다."

김 동문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공부의 재미를 맛봤다. 대학원에 진학한 뒤 연구에 필요하거나 평소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수업을 찾아 들었다. 학점을 따기는 어려웠지만 더 풍부한 배움과 재미가 따라왔다. 이주대 재학시절 공장·점심시간을 아껴 공부하면서도 산업공학과 마케팅 소학회 이사와 테니스 동아리 ATC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왔다. ●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이주대에서 일정 조건의 학점을 취득하고,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상대 학교에서 남은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양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주대는 미국 스톤브룩대학(Stony Brook University), 일리노이공과대학(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및 호주 선샤인코스트대학(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과 복수학위협정을 맺고 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Location Premium - 산업벨트의 중심 ①

CJ BLOSSOM PARK

"CJ의 미래- 이주와 함께 활짝 필 것 같아요"

광고 바이오벨트의 시작, CJ블로섬파크



이주대를 방문한 손경식 CJ를 회장 겸 동원 총장의 환담



CJ블로섬파크 정재호 상무, 김영철 부장이 '브랜드전략실'과 만났다.

산업체와 대학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은 인재양성 및 연구의 요람으로서, 기업은 첨단기술 상품화의 첨병으로서 발맞추어 가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광고-광고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경기 과학 벨트의 주축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AJOUINSIGHT>는 시리즈로 아주대와 발맞추어 경기 과학 벨트의 주요 기관을 조명할 계획. 그 첫 번째로 내년 봄 오픈을 앞둔 CJ블로섬파크를 소개한다.

CJ블로섬파크는 과거 4개로 나뉘어 있던 CJ제일제당 연구소들을 통합한 연구소로 2016년 봄 개원 예정이다. ▲식품 ▲소재 ▲바이오 ▲생물자원 분야를 포괄하며 600여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상주한다. 상주인원은 오는 2020년 웰스케어 부문을 포함하여 1000여명까지 확대될 예정. CJ블로섬파크의 R&D 기획 책임을 맡고 있는 장재호 상무와 김영철 인사부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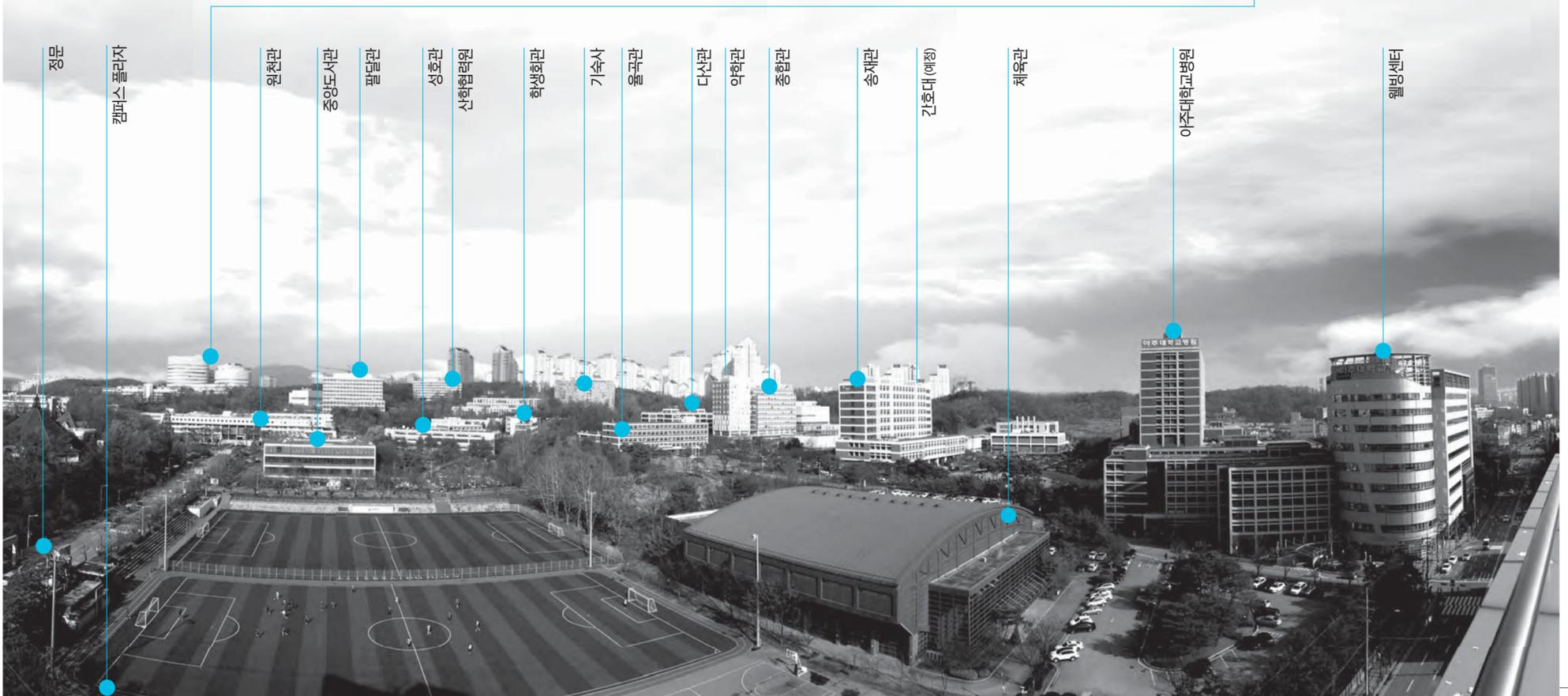
④ CJ블로섬파크와 아주대학교는 하나의 단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앞으로 양 기관 사이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크게 보면 연구 협력과 인적 교류다. 아주대나 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포럼에 자유로이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것부터,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의 제교육을 위해 아주대학교 인력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교류는 근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다. CJ블로섬파크는 넓고 크게 산학협력의 밑거름을 그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 대학들이 연계해 창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참여하고자 한다.

④ 광고 인근에 CJ블로섬파크와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 '광고바이오벨트'로 불리는 연구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는? 경기 북부 지역에 제약회사들이 밀집해 있다.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 특히 아주대 인근에는 하나의 '연구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단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곳이 미국의 실리컨밸리에 버금가는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④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산학협력', 그리고 대학에 바라는 바는? 기업들에 비해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과 교수들이 있고, 그분들과 협력을 하고 싶다. 기업들은 트렌드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 보다는 중단기적 관점의 연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집중하기 어려운 연구를 하고 있는, 기반기술이 튼튼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대학에서 '논문'을 위한 '논문'을 내기 보다는 산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



개발단지와 CJ블로섬파크



정문

캠퍼스 플라자

원관

중앙도서관

필립관

성조관

산학협력관

학생회관

기숙사

올림픽관

다산관

익학관

중흥관

송재관

간호대 (예정)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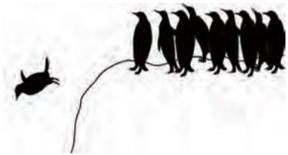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AJOU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아주대학교 의료인문융합콘텐츠사업단

유쾌한 초대석 - 융·복합 First Mover들의 방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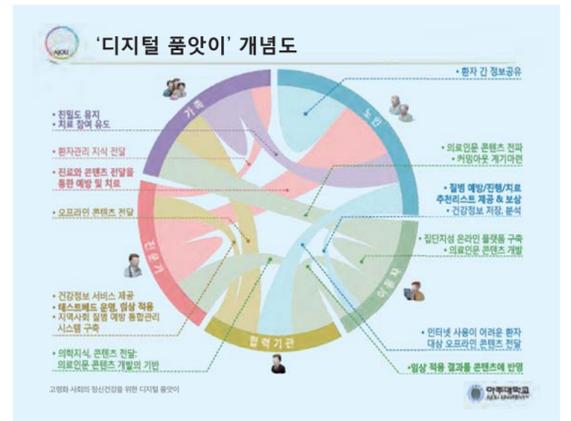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이른바 융합의 시대다. 아주대학교 역시 학문 간 교류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연구센터지원사업 융합분야(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신규과제에 선정된 아주대학교 의료인문융합콘텐츠사업단이다. 박정식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주도하는 사업단의 연구 주제는 '고령화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디지털 품앗이(Digital Connectedness/Sharing for Mental Health Care in the Aging Society)'다. 이번 과제는 의학적 지식과 인문학이 결합된 의료인문학(醫療人文學, medical humanities)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융합이 열어갈 새 시대를 꿈꾸며 박정식(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단장을 비롯해 정경훈(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창형(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이경원(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교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치료보다 예방, 의료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정식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중이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에 따라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일본에 비해 30%나 빠른 속도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인의 치매 및 정신질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홍창형 우리 연구팀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치매 치료약 개발을 멈췄다. 1996년 치매약이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약은 4가지에 불과하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개발된 약이 아예 없다. 이제는 의료계가 치매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2011년 신경의학 학술저널 란셋 뉴로로지(The Lancet Neurology)에 '모든 치매는 일곱 가지 생활요인만 개선하면 50%이상 예방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이 게재된 바 있다. 일곱 가지 생활요인에는 ▲당뇨 ▲중년기 고혈압 및 비만 ▲흡연 ▲우울증 ▲교육수준 저하 ▲운동부족이 해당된다. 세계적인 권위 학술지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는 30년 전에 비해 치매노인의 비율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생활수준, 교육수준, 혈관성 요인 등을 개선하면 치매 발병을 낮출 수 있다는 증거다. 현재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다. 노인성 우울증은 10명 중 3명, 불면증은 10명 중 5명, 노인 자살은 10명 중 1명꼴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 정신건강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그렇기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홍창형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경원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특정 질환 환자,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수의
100배 이상...
'정보 공유'는 생명과 직결"

"협력과 공유의
'디지털 품앗이'가
정신질환 예방의
본격 플랫폼 될 것"

협력과 공유의 가치

이경원: 우리 사업단의 공식 명칭은 '고령화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의 심볼마크는 원형(圓形)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형상화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은 '협력과 공유'다. 여기에는 다섯 개 그룹(가족, 노인, 이용자, 협력기관, 전문가)이 참여한다. 서로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활용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데이터(혈당, 컨디션, 인지능력 등)를 수집·분석하고, 위험인자를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센터, 온라인에서는 집단지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홍창형: 연구팀이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실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다. 특정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의 최소 100배 이상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험과 정보의 공유가 환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뇌졸중(Stroke)이 발생했을 경우 아스피린(aspirin)을 복용하면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아스피린 한 알은 40원이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정보의 공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박정식: 질병을 앓는다는 것은 고통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다. 정신질환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주변 사람들 간의 경험 및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질병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혼자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병과 함께 살아간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안과 공감, 의지와 용기 등이 필요하다. 주변에 알려 도움을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회가 한층 건강해질 수 있다.

정경훈: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정보는 문화적 아이콘과 담론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다큐멘터리나 만화 등과 같은 대중화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주철환·전윤수 교수와 JTBC의 여운혁 PD도 이번 연구에 참여한다. 치매 케어이웃에 관한 캠페인 다큐멘터리도 구상 중이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질병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경훈: 고령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 연구팀은 고령화 문제를 '인간의 삶'이라는 총체적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대만 국립타이완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등에서도 이주대의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북경대학교는 우리 연구팀의 디지털 응용인문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추후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협력한다면 '의료 한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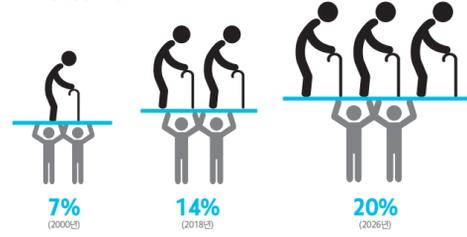
박정식: 연구와 미래 산업에 기여할 인재양성에도 힘을 것이다. 의료와 인문학이 결합된 의료인문전공을 국내 처음으로 대학원에 신설하여, 메디컬 큐레이터를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 2학기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의학 관련 콘텐츠를 만들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다.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의학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주대학교에는 의대·인문대·공대·정보통신대가 모두 존재하기에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훗날 국가적 미래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홍창형: 우리 연구팀은 콘텐츠 개발부터 테스트베드(Test Bed)를 통한 효과성 검증, 논문발표는 물론, 콘텐츠 보급까지 소화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이번 과정을 수행하고 있기에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큰일을 해내리라 기대한다.

2016년 수원시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수도'를 선포한다. 관련 국제학술대회와 정신건강박람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주변에는 우리 연구와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마련된다.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 공공기관이 힘을 합치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 고령화 현황

65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변화추이와 예측



자료제공: CRC 사업단



"인간의 삶이라는 총체적, 인문적 접근의 고령질환 해결에 獨·中 관심 '의료 한류' 창출 보여"



정경훈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국내 최초 의료인문과정 대학원 개설 '메디컬큐레이터' 양성해 국가적 먹거리 산업화에 기여"



박정식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연구책임



괴짜 같은 진짜

정민석 아주대 의대(해부학교실) 교수

아주 남달라야 한다!

- 아주 남달라야 한다. 조금 남다른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수들이 쓰는 논문은 모두 남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해내야 한다. 아주대가 살아남는 방법도 '아주 남다른' 것이다.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내 지론이다. "뭉쳐야 산다"가 통하던 시대는 갔다. 어떻게 하면 남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우리 학생들이 연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게 모이면 아주대의 정체성이 된다. 각 학과에서, 각 세대별로 괴짜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 한국 사회에서는 남다른 욕 먹는다. 머리를 뺨뺨 까고 다닌다고 만화를 그린다고 욕을 먹었다. 교수, 의사의 체통을 깎는다는 것이다. 욕을 먹어도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괜찮다.

- 나에게 만화란 훌륭한 무대다. 글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담아내는 소통의 도구다. 게다가 만화는 재밌다. 재미가 없으면 만화가 아니다.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내 생각을 공유하게 되니 참 좋다.

- 내 꿈은 '조용필'이 아닌 '씨'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내가 유명해지면 독자들이 내 소식을 기억한다. 작가의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남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길을 가서, 내가 유명해지면 그게 예교의 길이다.

- 학생들이 만화를 많이 그렸으면 좋겠다. 자기 이야기도 하고, 아주대학교 이야기도 했으면 한다. 만화를 그릴 때 중요한 것은 그림보다는 글이다. 그림 못 그린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찾으면, 취직도 저절로

해방 선생의 일기
21
아주대 해부학 정민석 교수

오늘은 학생 때 했던 미팅이 생각났다. 내가 맥박을 먼저 줄게.

해부코담배갑(anatomical snuffbox)에서도 노동맥을 만들 수 있지.

노동맥 (해부 코담배갑의 노동맥)

손목에서 자동맥(ulnar artery)도 만들 수 있다고.

위팔두갈래근 (biceps brachii)의 인쪽에서 만져지는 위팔동맥(brachial artery)은 혈압을 잴 때 쓰고,

빗장뼈 뒤를 누르면 빗장밑동맥(subclavian artery)의 맥박이...

지난 번에 한의대 학생은 노동맥만 만지던데, 예는...

해방 선생의 일기
300
아주대 해부학 정민석 교수

오늘은 이 만화를 그리는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다.

이 만화를 그린 첫째 목적은 학생이 해부학을 웃으면서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일반인이 의과대학의 속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적은 나 자신이 마음껏 노는 것입니다.

교수가 할 일이 없습니까? 왜 만화 따위를 그립니까?

만화 따위!

특히 해부학 지식에 관한 농담을 보고 웃으면 그 지식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 관한 농담은 별로 없던데.

어느 분야의 농담을 보면 그 분야의 속내를 알게 되고, 따라서 호기심을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노는 명분은 만화에 넣을 농담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농담을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아주대학교는 영어로 Aju University이며, 알파벳 차례로 한국에서 첫째 대학교입니다.

독일에 Aachen University가 있는데, 이 대학교를 누르고 세계에서 첫째가 되려면 Aajou University로 바꿔야 합니다.

Aaajou University로 바꾸면 상징물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삼겹살이 아닌 삼겹뿔입니다.

병원도 세계에서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1st Aaajou University

2nd Aachen University

아~주대학교

아세아(Asia)연합신학대학교 보다 먼저입니다.

정민석교수가 직접 그리는 해방선생의 일기

된다. 내가 대기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 골고루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잘하는 게 좋지 않나? ㉠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박형주 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
국기수리과학연구소장

전 생애를 통해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다산 정약용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데에 일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어문, 역사, 지리, 과학, 의학, 예술 등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저술을 남긴 박학(博學)의 학자였다.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는 21세기 융복합 시대에 다시 조명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시대 대학도 고유의 학문 연구와 교육의 기능 뿐 아니라, 상이한 분야의 충돌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들을 만들어 내어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게 중요해졌다.

수학은 어떤가? 사회와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는 수학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많다. 문제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순수수학의 전 영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응용수학과 구별해서 산업수학으로 통칭하곤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서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겨진다.

구글은 2012년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유튜브의 방대한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와 고양이도 있고, 반면에 전혀 다르게 생긴 두마리의 강아지도 있겠지만, 사람의 눈은 이런 차이를 자연스럽게 구분한다. 구글처럼 많은 수학자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이 구별을 자동화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킨 딥러닝은 이제 많은 수학자들과 전산학자들 및 통계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되었다. 구글은 이를 상품화 했다. 개인이 무한정의 사진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게 했는데, 딥러닝 방식으로 사진을 비교하고 자동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방문한 장소나 같이 찍은 사람들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리를 갖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산업수학 자체를 기업의 비즈니스로 하는 수학 기반 스타트업도 출현하고 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혀 다른 DNA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중이다. 기존 기업의 혁신이 다분히 응용과학적인 개선이라면, 이 수학 기업들은 통찰을 즉시 상품화 한다. 기초과학에서 응용성을 이끌어내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것이다.

스탠포드대학 수학과 학과장이던 구나 칼슨 교수는 제자와 함께 2008년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AYAS-DI를 창업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비슷한 생체 데이터를 가진 환자들인데도 추가검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별해

낸다. 비슷해 보이는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보고도 사기성 사용과 양호한 사용을 구별한다.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순수수학이론으로 만들어낸 이 미술은 이제 위상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린다. 위상은 모양을 뜻하니, 거대 데이터의 모양을 보고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 스타트업 기업은 벌써 1억달러 이상의 벤처자금을 확보했다. 빅데이터 방식의 무인진단법도 더 정교해지고 있다. 특정인의 생체 데이터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해서 이전 환자들에게서 수집한 생체데이터와 비교하고 상호유사성을 재는 것이다. 이 유사성을 재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수학을 쓴다. 그 유사성이 아주 크면 병원

을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므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크게 줄어든다. 수술로봇이나 진단 소프트웨어에 업무의 일정 부분을 맡기고 의사는 난치병 치료법 개발 등 고차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한다. 무인자동차가 실현되면 택시의 운용방식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인데, 실제로 미국의 운송네트워크 회사 우버는 이미 이런 실험을 시작했다. 수학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지난 2003년에 뉴욕시는 공립학교 배정 방식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 다섯 개를 써내면 학교가 순차적으로 선발여부를 결정했는데 여러 문제가 학교와 학생 모두 불만이 많았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학생이 하나의 학교만 적어낸다. 각 학교는 지원자 중에서 일부를 선정한다.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하나의 학교를 적어내고 이 과정은 반복된다. 이 제도 시행 후에, 엉뚱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자 학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 배정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하버드대의 앨빈 로스 교수다. 그는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UCLA의 수학자 로이드 새플리 교수와 함께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새플리 교수와 데이비드 게일과 함께 제안한 수학 알고리즘을 로스가 각종 경제현상과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했는데, 뉴욕의 학교 배정은 그 한 예이다.

통찰의 상품화라는 관점에서 수학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 스타트업 중에는 미국 벤처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수학 기반의 스타트업은 하드웨어의 제한이 없고 지역이나 언어의 제한도 크지 않으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R&D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몇 가지 성과를 낼 수는 있으나,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산업의 추세에 밀리게 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다. 시스템적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수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의 병행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 산업수학사업단을 설치하고 산업계에서 발굴한 문제를 난이도에 따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학의 다양한 분야가 사용되고 학생들은 학업 동기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산업의 문제에 노출된 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도 늘 것이다. 산업 난제를 수학기반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 경험을 갖게 되는 기업은, 산업수학 분야의 훈련을 받은 재학생 인턴과 졸업생 그리고 연구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이 커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대학에서 전통적인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

수학기업과 스타트업 수학벤처들, '통찰의 상품화' 본격 가동 중
생명체 인식, 운전, 점진, 수술, 카드사기 방지, 진학·진로 해결까지
대학, 시대의 변화 크게 다르게 수렴하는 대변혁 있어야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수학은 이제 생활을 바꿔가느라 바빠요~"

특별기고
수학, 21세기 융복합시대를 만나다

아주소프트파워

전윤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감독

DREAM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전윤수 교수가 감독한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가 지난 10월 개봉했다. 가까이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기 어려운 가족과 친구, 연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를 제작하며 어려웠던 점?

유니버스 영화의 특성상 하나의 감정선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일반 영화는 보통 2시간 동안 한 인물군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이 쌓이는 반면 세 인물군이 교차되며 흘러가야 했기 때문이다. 공간이 삼등분되어 있어 감정의 생략과 비약이 불가피했다. 주어진 분량에서 감정의 선을 흐트러지지 않게 끌고 가는 게 큰 숙제였다. 특히 10개월간 진행된 편집 작업은 독특한 구성적 특성을 감당해 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컷의 미세한 길이와 음악의 활용, 음향의 고저 등 아주 작은 변화에도 감정이 크게 달라져 꽤나 애를 먹었다. 작품 외적으로도 고민이 있었는데, 일상적이고 잔잔한 이 영화의 줄거리가 과연 자극적인 줄거리에 익숙한 관객들을 극장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흥행과는 관계없이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바로 아주대에서의 영화 시사회다. 개봉을 앞두고 아주대 종합관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했다. 관객들이 웃고 울고 또 함께 박수치는 모습을 보며 영화를 연출한 감독으로서,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서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영화 속 아주인과 아주대?

이 영화는 아주대 교직원과 학생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제작 초기 아주대학교병원 홍보팀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병원 이미지와 의료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학과 직원과 동료 교수들께서 촬영기간 내내 간식을 들고 현장을 찾아와 응원해줬고 특히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제작팀과 연출팀으로 때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보조출연자들도 나서줬다. 영화 속 병실 창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대학교 다산관 잔디밭을 심어 넣었는데, 이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영화인이 되고 싶다면?

영화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려낸다. 때문에 주변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독단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영화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어렵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창작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 고통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창작의 결과물이 주는 짜릿한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인생의 본질을 느끼고 즐기는 것, 폭넓은 사고로 진정한 자유로움의 가치를 맛보는 것 - 영화감독으로서 느낀 창작의 고통과 즐거움을 우리 학생들도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

남기고 싶은 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기대어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한다. 삶은 신비로움의 연속이며 인생은 기적처럼 아름답다. 서로 사랑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적은 고백의 순간에 찾아온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일상의 행복감을 아주인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해 보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④



‘유쾌한 반란’이 세계를 갑니다-

“그 친구를 보내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까?
 꿈과 의지는 높으나 힘들어 하는 학우가 곁에 있습니까?
 지금바로 <AFTER YOU 프로그램>에 추천해주세요!
 그에게 당신과 우리 학교, 사회, 그리고 미래가
 값지고 뜻깊은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어려운 그 친구가 혹시 당신이라면 직접 신청하십시오.
 인생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나보다 너 먼저~”가 당신에게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FTER YOU” 프로그램 2015 겨울 아주글로벌캠퍼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학우 여러분, 교수님, 교직원 분들께서 알고 계신 어려운 학우님에 대한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31 219-2035/2923

올겨울
 아주인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중국 북경에서
 4주간 펼쳐질
 뜨거운 열정에
 아주인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북경이공대학
 중국 대학 17위
 아시아 대학 80위

2016. 1. 3. (일) ~ 1. 30. (토)
/4주

고밀도 중국어 집중 학습 +
 현지 재학생과 언어 실습
 수준별 6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중국문화탐방 총 4회
 특강 4회
 아주대학교 학생 18명
 전액 장학(약 2백만원 상당)



미시간대학교
 미국 공립대 3위
 세계 대학 23위



상해교통대학교
 중국 대학 3위



존스홉킨스대학교
 미국 대학 10위
 세계 대학 14위

2015 여름 아주글로벌캠퍼스
 지난 7-8월 첫 참가자 80명이 4주동안 미국·중국 명문대학으로
 파견되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이다

RESEARCH NEWS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Nonlinear quantum plasmonics of van der Waals gaps at terahertz frequencies

이상민 교수팀,
전자소자분야 혁신 기반 마련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물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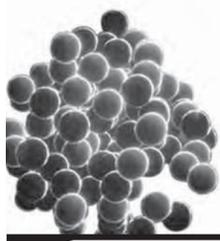


이주대학교 이상민 교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물리학과)와 서울대 김대식 교수(물리학과) 공동 연구팀이 원자 크기의 틈을 제작해 새로운 물리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논문은 'Electromagnetic saturation of angstrom-sized quantum barriers at terahertz frequencies'라는 제목으로 <Physical Review Letters> 9월16일자 온라인판 표지 논문으로 실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원자 크기인 1옹스트롬(1억분의 1cm) 크기의 틈을 제작해 밀리미터 크기 파장의 빛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또 이 틈을 이용해 테라헤르츠파를 집중,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투과율이 줄어드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발견해냈다. 1옹스트롬은 0.1나노미터(10억분의 1m)와 같은 값으로 원자 하나 크기다. 테라헤르츠는 가시광선이나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위험물질 탐지나 제품 검수 등에 활용되는 광원이다. 테라헤르츠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테라헤르츠라는 광원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고, 연구팀의 이번 발견이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자지원)을 통해 수행했다.



LRRK2 G20195 mutation attenuates microglial motility by inhibiting focal adhesion kinase

조은혜 교수팀,
파킨슨병 새로운 원인 규명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뇌 흑질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발생하는 파킨슨병이 신경세포가 아닌 신경교세포의 이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과대학 조은혜 교수(약리학교실) 팀이 규명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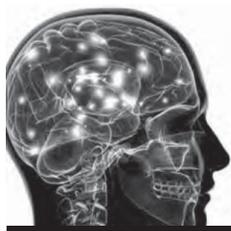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게재.

조은혜 교수팀은 파킨슨병 유전자 LRRK2에 돌연변이(G2019S)가 생긴 쥐에서 뇌의 이상 유무를 정찰하는 신경교세포의 하나인 마이크로글리아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의 뇌는 10%의 신경세포와 90%의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의 생존과 뇌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신경세포의 죽음은 신경세포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신경교세포의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연구는 파킨슨병 유전자 LRRK2의 새로운 타겟 단백질로 FAK를 확인하고, LRRK2와 FAK의 활성화를 조절하면 돌연변이(G2019S)로 인해 나타나는 마이크로글리아의 기능저하와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조 교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치료 타겟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velopment of cheaper nanotechnology for efficient 'Solar-Hydrogen' production

조인선 교수팀,
수소 생산 효율 높이는 나노소재 개발

신소재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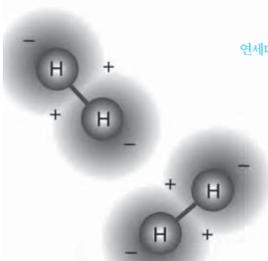


신소재공학과 조인선 교수가 광촉매인 티타늄 산화물(TiO₂)을 이용, 태양광 흡수 능력 및 전기전도도를 크게 높이는 나노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태양광 소자의 물 분해 수소생산 효율을 최대이론값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연세대 박종혁 교수, 포항공대 박태호 교수가 함께 한 이번 연구는 나노분야 저명 학술지 '나노레터스(Nano Letters)' 8월18일자에 게재. 제목은 <Highly Efficient Solar Water Splitting from Transferred TiO₂ Nanotube Arrays>.

태양광 물 분해 수소 제조는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 태양광에서 물을 분해, 청정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 생산 기술을 상업화하려면 생산효율을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산화광전극으로 사용돼온 티타늄 산화물이나 텅스텐 산화물(WO₃), 비스무트 바나듐 산화물(BiVO₄) 등의 효율이 낮아 태양광 소자의 수소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구진은 티타늄 산화물 소재를 이용해 나노튜브 구조로 만들고 용액공정과 화염(flame) 공정을 결합한 새로운 이중 환원 공정처리를 통해 티타늄 산화물 나노튜브 소재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수행했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otential therapeutic targets

최상돈 교수,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잠재적 치료타겟' 총설논문 발표

생명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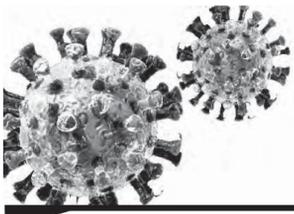
생명과학과 최상돈 교수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이러스를 분석한 총설논문을 8월28일자 <실험 및 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전파, 바이러스, 치료(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transmission, virology, and therapeutic targeting to aid in outbreak control)'

최상돈 교수팀은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93종 MERS 바이러스 전체의 RNA 서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유행한 MERS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에서 발견된 MERS 바이러스종과 가장 유사함을 밝혀냈다. 지난 6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추정해 내 국내 첫 MERS 환자의 감염경로를 확정한 것.

MERS 바이러스의 기능 및 증식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MERS 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인체에 침입해 RNA 가닥을 주입, 인체 시스템을 이용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한다. 이 바이러스 단백질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인체 세포를 파괴된다.

현재 최상돈 교수 연구팀은 MERS 연구의 세계적 대가인 미국 시카고 소재 로올라대학의 수잔 베이커(Susan Baker) 교수와 함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행한 MERS 바이러스 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dentification of a key regulator of liver cancer progression

윤계순 교수팀,
악성 간암 유발 DNA 규명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의과대학 윤계순 교수팀이 악성 간암을 일으키는 DNA를 대거 찾아냈다. 이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간암의 항암치료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연구는 학술지 <헤파톨로지(Hepatology)> 7월14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윤계순 교수(교신저자), 생리학교실 우원구 교수(공동 교신저자), 이영경 박사(제1저자)가 참여.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수행.

간암은 국내 중장년층 암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진단 시기가 늦다 보니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간경변을 동반한다. 때문에 화학 및 방사선 요법을 쓰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연구진은 미토콘드리아 손상 세포를 표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되면 암의 악성화를 촉진한다.

연구진은 DNA 마이크로레이와 생물정보학 분석 기법을 통해 **간암을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10개의 핵심 유전자를 찾아냈다.** DNA 마이크로레이는 수만 종류의 매우 작은 DNA 조각이 고체 표면에 집적된 것으로 여러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연구진은 10개의 핵심 유전자가 모두 발현한 환자의 경우 2년 생존율이 35%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10개 유전자가 모두 발현하지 않은 환자의 2년 생존율이 76%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10개 유전자가 모두 발현한 환자는 수술 후 2년 내 조기 재발률도 35% 이상 높았다.

윤계순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성 항암 표적 발굴은 간암의 진단 및 치료 전략을 새롭게 제시, 기존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항후 간암 등 다양한 악성 암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성 핵심 유전자 중 하나인 NUPRI'은 그라눌린(Granulin)이라는 유전자를 발현, 간암을 악화시키는 데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Prof. Seo's team achieved technical transfer of colorimetric safety sensor technique

서형탁 교수팀,
육안으로 수소 판별 가능한 센서 개발...기술이전 성공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신소재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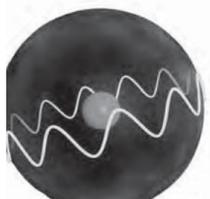
서형탁 교수(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 신소재공학과)팀이 '수소착색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현대자동차 산학협력과제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과제 및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박사과정의 이영안 학생과 Dr. Shikara S. Kakanura 연구원이 참여.

수소는 에너지 연료원으로 자동차, 전기 생산 분야 등 산업 전반에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안정성이 문제였다. 수소는 무색, 무취에다가 가벼워 누설의 위험성이 높고 공기 중 농도가 4%만 되어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소 누출 시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수소착색센서는 모든 농도에서 수소 감지가 가능하고 3초 이내에 색상이 변하면서 수소의 유무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다. 상온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종이 등 다양한 모양과 재질에도 부착이 가능하다. 서 교수팀의 수소착색센서는 다양한 용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 공정, 신뢰성과 관련된 원천기술도 이미 특허를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상용화에 매우 근접해 있다.**

서 교수팀의 화학적 착색에 의한 위해성 물질 감지 소재 및 센서 형성 기술은 (주)가온인더스트리로 기술이전 되었으며, 가온인더스트리는 서 교수팀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유해한 산업 용액이나 가스가 외부로 검출되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색상이 변하고 동시에 전기적으로 반응하는 안전센서를 개발해냈다.



NEWS

AWARD & SELECTION

아주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6일 아주대학교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북대, 세종대, 충남대, 가천대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40개 대학이 신청, 경합을 벌인 끝에 8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참여 대학들은 최장 6년 간 연평균 2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컴퓨터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인문·사회 등 다른 계열의 신입생에게도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선발 전형 마련, 공개 소프트웨어 교육, 영어 교육 강화 등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주어질 과제다.

한편 지난 11월6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비롯한 8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총장 및 관련 교수들이 모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AWARD & SELECTION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획득

아주대학교가 교육부 발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산업대, 전문대를 평가해 A-E등급으로 나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지난 8월31일 발표했다. 163개의 4년제 대학 중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아주대를 비롯해 34개교에 불과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의 체질개선과 동시에 입학정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대학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등급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아주대는 최우수등급을 획득, 2017학년도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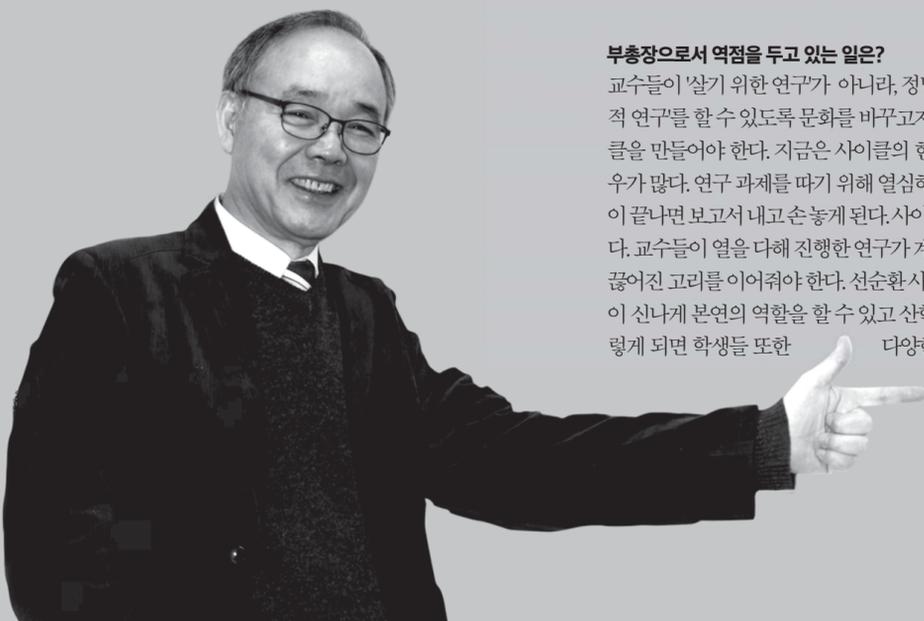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대학에
고용노동부 선정

10월5일 고용노동부는 아주대학교를 비롯한 21개 대학을 '전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구직자들이 구직 상담과 진로지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 대학 내에 분산되어 있던 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소속 대학의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 구직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대학에는 평균 사업비 5억원(연간)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5년으로 시행 2년 뒤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부총장에게 듣다

최경희 정보컴퓨터공학과 / 산학부총장



아주대가 올 8월 산학부총장직을 신설하고 최경희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산학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최 부총장은 지난 1982년 아주대에 부임해 정성과 애정을 담아 학생들을 지도해왔다. 최경희 산학부총장을 만났다.

부총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교수들이 '살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몰두하는 '생산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고자 한다. 연구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사이클의 한쪽 고리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 과제를 따기 위해 열심히 제안서를 쓰고, 과제 기간이 끝나면 보고서 내고 손 놓게 된다. 사이클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린다. 교수들이 열을 다해 진행한 연구가 계속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끊어진 고리를 이어줘야 한다.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교수들이 신나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산학협력도 더 활발해진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또한 다양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기술

과 사회, 직업인으로서의 삶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웃으며 학사모를 쓰고, 실패한 사람은 울며 졸업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 보다 더 큰 것을 봤으면 좋겠다.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깨지지만 젊은이가 넘어지면 찰과상 정도에 그친다. 설사 다리가 부러진다 해도 뼈가 다시 붙고 나면 더 튼튼해진다. 학생들에게 수없이 '넘어져 보고 다쳐도 봐라고 조언해줘야,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소용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구르고 넘어져 볼 수도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고 싶다. 문화가 바뀌면 학생들의 마인드가 자연히 바뀌고, 개인의 변화를 불러올 모멘텀 즉 촉매가 생겨난다. 학교 앞 거리를 '창업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뒀다. 학교 앞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보다 생산적이고 풍부한 문화와 미래를 논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아주의 교내외를
'문화의 플랫폼'으로 바꿀 것"

MEDICAL NEWS

아주대의료원, 중국에 1천병상
종합병원 건립 추진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중국 강소성에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의료원은 11월1일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해 열린 '제5차 한일 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국 소주 고속철신도시관리위원회 및 중국 상하이 골든 킬인 인베스트 유한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내 종합병원 신설·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종합병원은 중국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 상성구(相城區) 고속철 신도시 내 의료구역에 1000병상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며, 향후 3000병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수년 내 아주대학교의료원 수준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병원 전체 인력의 30%까지 한국에서 파견할 계획이다.

MEDICAL NEWS

권역외상센터 상량식
중증외상 24시간 최적 치료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8월17일 권역외상센터의 안전한 준공을 기원하는 상량식을 개최했다.

상량식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 이영현 상임이사,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원 교직원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권역외상센터 상량을 축하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지난 해 4월1일 착공한 권역외상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0,959㎡ 규모로 2016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중환자실 총 40실을 비롯해 외상진료실 6실, 수술실 3실, 소생실 2실 등 두어 중증외상환자가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받게 된다.

EVENT

원천정보관 준공... 김정식
'해동' 이사장 5억 출연

원천정보관 준공식이 11월19일 오전 열렸다.

원천정보관은 원천관 뒤편, 예전 동아리실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273평의 3층 건물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학술정보실, 3층에는 세미나실이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학술정보실은 지난해 해동과학문화재단(이사장 김정식)이 이공계 학생전용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부한 5억원으로 만들어졌다. 기부자의 뜻을 기려 이름도 '해동학술정보실'이라고 붙여졌으며 준공식에 이어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정식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이·공학 분야 발전을 위해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해왔다"며 "아주대 학술정보실에서 우수한 이·공학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VENT

미래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선정 첨단 실습실 개소

정보통신대학 사이버보안학과가 '사이버 시큐리티 멀티플렉스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학교는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보안 전공을 사이버보안학과로 확대 개편했다.

11월 24일 오후 팔달관에서 열린 사이버 시큐리티 멀티플렉스 센터(Cyber Security Multiplex Center) 개소식에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박춘식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이버 시큐리티 멀티플렉스 센터'는 정보보안 장비를 갖춘 사이버보안학과와 실습실이다. 사이버 보안 대응과 위기관리 등을 실습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과 관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킹 방어 및 가상 해킹 훈련, 침해 사고 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AWARD & SELECTION

'빅데이터 기반 한국사 연구' 연구재단 지원 사업 선정

아주대학교 학제간융합연구사업팀(책임: 이상국 사학과 교수)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에 선정됐다.

인문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며,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권력 메커니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제간융합연구사업팀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융합연구의 방향성을 학계에 제공하고 역사학 기반 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과 융합적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VENT

해외창업 프로그램 KOTRA와 함께 운영키로



김동연 총장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해외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놈펜관, 캄보디아 대학들과 MOU가 체결되어 연내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외 창업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캄보디아 해외 창업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해외 창업을 돕고 현지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1년간의 경비 뿐 아니라 멘토링 및 관리, 교육 참여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현지 기관과 대학의 도움을 받아 비즈니스 모델 개발(6개월)과 창업 인큐베이팅(6개월)을 진행할 예정이다.

PEOPLE

박형주 석좌교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에 임명



아주대학교 수학과 박형주 석좌교수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제4대 소장에 임명됐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설 기관으로 응용수학 및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박형주 교수는 국내 수학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학자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수학계의 올림픽 '세계수학자대회(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의 조직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IMU Executive Committee Member)에 선출되기도 했다.

EVENT

통일연구소 개소 기념 '통일 컨퍼런스' 홍용표 장관, 남경필 지사 등 연사로



아주대 통일연구소 개소를 기념하는 '통일 컨퍼런스'가 12월 10일 울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분단 70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주대와 경기도 주요 기관이 힘을 모아 통일 시대를 준비해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제1세션-경기도에서 통일 미래를 바라보다>, <제2세션-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의 성찰 및 평가>, <제3세션-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통일사업의 방향과 아주대의 역할>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강득구 경기도 도의회 의장,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직 통일부 장관 3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컨퍼런스처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주대는 통일로 향하는 관문이자 접경도인 경기도의 대표 대학으로서 통일 준비에 앞장서고자 '통일연구소'를 개설한다. 통일연구소는 우선 통일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한 분야별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연 총장은 "경기도와 손잡고 통일 한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며 "아주대 통일연구소는 통일과 관련된 연구와 제도의 준비 등에 있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VENT

공공정책대학원, 아주-경기 전문 공무원 계약학과 운영 협약



아주대학교에 경기도 공무원들을 위한 계약학과가 개설된다. 경기도와 아주대는 지난 9월 11일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신설학과는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내에 개설되며 경기도 공무원만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과 정원은 20명이다. 실무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문중심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인사혁신방안 중 하나로 대학위탁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AWARD & SELECTION

국방RAM특화연구실 개소



장중순(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8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2015 신규 국방특화연구실 기관선정 사업>에서 '국방RAM 특화 연구실'로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총 50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게 됐다. RAM은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및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설계와 예방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분야이다.

연구소 개소식에서 장중순 교수는 "한국형 무기체계와 운용환경에 최적화된 RAM 개념과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VENT

일본정책연구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 열려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센터장 박성빈)는 10월 28일 양국의 주요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한일경제협력의 시대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과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에는 한일 각 2명의 발표자들 이외에 김용진 아주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사회를 맡았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원덕 현대일본학회 회장,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 오사다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NEWS

AWARD & SELECTION

2015년 교육 및 연구우수교수 시상



교육 및 연구 우수 교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심사는 2014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시상식은 지난 8월20일 열린 교수워크숍에서 진행됐다.

<교육 우수 부문>

▲대상: Teemu H. Laine(정보컴퓨터공학과)

▲우수상: 정의진(수학과), 유선우(문화콘텐츠학과), 박영준(경제학과), 김형규(다산학부대학), 이소현(다산학부대학)

<우수 논문상>

▲World Class Prize: 김성환(물리학과)

▲Gold Prize: 이교범(전자공학과)

▲Silver Prize (8명10편, 2명 중복)

박기동(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문석(응용화학생명공학과), 안병민(신소재공학과), 신귀암(환경공학과), 이교범(전자공학과), 김경일(심리학과), 좌동경(전자공학과)-2편, 이상운(물리학과)-2편

▲Bronze1 Prize(10명 11편, 1명 중복)

박기동(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동권(기계공학과), 고정환(산업공학과), 윤현철(응용화학생명공학과), 최권영(환경공학과), 안영환(물리학과), 이순일(물리학과), 배형욱(금융공학과), 정이숙(약학과), 남석현(생명과학과)-2편

▲Bronze2 Prize(30명 41편, 10명 중복)

박기동(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동권(기계공학과)-2편, 박명준(화학공학과)-3편, 서형탁(신소재공학과)-2편, 박상철(산업공학과), 권오필(응용화학생명공학과), 윤현진(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상욱(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교범(전자공학과), 좌동경(전자공학과)-2편, 김상인(전자공학과)-2편, 박성진(전자공학과)-2편, 김재훈(정보컴퓨터공학과), 안영환(물리학과)-2편, 김환명(화학)-2편, 장혜영(화학), Avik Ranjan, Sarkar(화학), 강혁(화학), 전영목(수학과), 김기홍(물리학과), 이상민(물리학과), 엄동일(물리학과)-2편, 송영훈(생명과학과), 최상돈(생명과학과), 박상규(약학과)-2편, 이범진(약학과), 백승훈(약학과), 장선영(약학과), 김소희(약학과), 김형택(에너지시스템학과)

<아주 연구상>

▲이공계: 박재일(산업공학과), 손태식(정보컴퓨터공학과)

▲인문사회계: 김서용(행정학과), Iain Watson(국제대학원)

PEOPLE

소의영 교수, 세계내분비외과학회 이사 겸 한국대표로 선임



의과대학 갑상선내분비외과 소의영 교수가 지난 8월23~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내분비외과학회 회의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내분비외과학회 이사회원(council member) 겸 한국 대표로 선임됐다.

세계내분비외과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docrine Surgeon, IAES)는 1979년에 설립돼 전 세계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계내분비외과학회 이사는 소의영 교수를 포함하여 13명이다.

소의영 교수는 갑상선질환 관련 수술을 6500여 건 시행한 명의다.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고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두경부중양학회 등 주요 학회의 회장을 두루 역임했다.

AWARD & SELECTION

건축학과 제해성 교수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



제해성 건축학과 교수가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선정한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수상했다.

제 교수는 201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건축 및 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도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 교수는 소장 재직기간 동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EVENT

인기의 '총장빵' 행사 "실력빵빵 아주인으로 갖길"



'총장 빵' 나눠주기 행사가 10월15일 오후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진행됐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클리어파일을 준비했다.

중앙도서관 광장에 마련된 행사부스에는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으며 김동연 총장과 최경희 산학부총장, 조재형 학생처장이 일일이 학생들에게 간식과 빵빵한 실력을 키우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총장 BOOK 클럽

김동연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달 한권의 책을 선정해 후 페이지를 통해 함께 읽고픈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다. 북클럽 참여자들은 도서관에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9월에는 <걸리버 여행기>를 함께 읽었고 10월에는 <다윗과 골리앗>, 11월에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으로 함께 했다. 12월의 책으로는 <담론>이 선정됐다.



EVENT

국내유일 아르헨티나 정부 위탁교육 '베카르 프로그램' 28명 수료생 배출



베카르 프로그램(BECAR Program)을 통해 아주대학교에서 28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액 지원해 자국 인재를 외국 대학에서 위탁 교육하는 것으로 아주대가 2013년부터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수료생들은 지난 석달 동안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과학), NT(나노기술), ET(에너지기술) 분야와 함께 한국경제 발전, 한국어 등의 교육을 받았다.

EVENT

아주의 세계, 세계의 아주 20번째 아주 인터내셔널데이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아주 인터내셔널데이'가 역대 최대 규모인 42개국 63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행사는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음식축제, 줄다리기, 장기자랑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을 위한 전통 궁중복식과 민속놀이 체험도 마련됐다.

합합댄스 동아리 비트와 AGA(외국인 학생 도우미 단체) 회원들이 함께 준비한 K팝 댄스공연에서는 공연자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춤을 추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가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한 자국 전통춤 공연도 펼쳐졌다.

PEOPLE

이민규 교수, '변화의 시작, 하루 1%' 출간

이민규 심리학과 교수가 '변화의 시작, 하루 1%'를 출간했다. 신간은 심리학적 연구와 실험을 근거로, 변화와 혁신이 쉽지 않은 심리학적 이유와 변화를 쉽게 만들어주는 지렛대 요인 1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지렛대들을 사용해서 변화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실천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이민규 교수는 2003년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를, 2006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를 펴낸 바 있다.





EVENT

국제대학원 20주년 기념 14개국 해외동문 초청회



개원 20주년을 맞은 국제대학원이 해외동문을 초청해 행사를 가졌다. 11월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4개국 20명의 동문이 참석하였고, 한국경제 글로벌인재포럼 참여를 비롯한 각종 강연과 견학 등 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주대 국제대학원은 세계화 흐름에 힘입어 루마니아, 폴란드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현지인 기술자 및 경영 인력에게 한국어를 비롯한 기술과 경영교육을 실시하고자 1996년 3월에 설립됐다. 현재 한국인을 포함해 국적이 상관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총 39개국 1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국제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NGO학과가 운영 중이다.

EVENT

85학번 모교방문의 날에서 발전기금 1억 약정



85학번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11월7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85학번 졸업생 180여명과 초청 은사, 보직 교수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김동연 총장의 환영인사와 학교발전방향 소개, 이범재 동문회장의 축사, 행사준비 경과보고, 발전기금 전달, 축하공연 등으로 채워졌다.

85학번 동문들은 이날 "AFTER YOU" 지원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고, 향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PEOPLE

매주 목요일 아주강좌 김풍 '잉여의 가치' 등 열려



웹툰 작가이자 자취요리 연구가인 김풍(본명 김정환)이 11월19일 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잉여의 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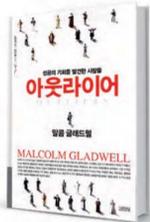
그는 "자신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했을 때 그 바닥을 밟고 일어날 힘도 생기는 것"이라며 "찌질함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누구에게나 잉여의 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그때의 불안과 초조는 훗날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주대는 매주 목요일 아주강좌를 통해 교내외 인사를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강좌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다른 대학 학생 등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총장 BOOK 릴레이

김동연 총장은 학생·교직원들과 책을 돌려 읽는 'Book 릴레이' 역시 시작했다. 김 총장이 먼저 책을 읽고 한 줄 서평을 단 뒤 원하는 사람이 돌려 읽는 모임이다. <톨스토이 단편선 1&2>, <아웃라이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학문의 즐거움> 5종의 책 25권이 교내에서 이어 돌아가고 있다.



PEOPLE

총장-학생 대화의 장 브라운백 미팅 이어져



2015학년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단 한 번의 중단없이 14차례 브라운백미팅이 이어졌다. 2학기 첫 미팅은 9월8일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동연 총장과 20명의 참가학생들은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연 총장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평소 건강, 지성 그리고 정신을 꾸준히 관리하길 바란다. 몸은 20대이지만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미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청년으로 살아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브라운백미팅은 격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DONATION

이종철 동문, 1억원 추가 기탁



이종철 동문이 지난 8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지난해 이종철 동문이 기부한 1억원은 '이종철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활용되어 올해 4월 첫 수혜자들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기부한 1억원 역시 이종철 장학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기당 1000만원씩 신소재공학과와 약학과 재학생 2명씩에게 지급된다.

이종철 동문은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 43기 졸업생으로 그동안 아경장학재단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PEOPLE

세계적 권위 서적 '다윈의 의문' 이재신 교수 등 아주대 교수진 번역 출판

아주대학교 교수 4명이 번역에 참여한 '다윈의 의문'이 출간됐다. 이 책의 원제목은 'Darwin's Doubt'로 스티븐 마이어(Stephen C. Meyer)가 쓴 책이다. 2013년 출간되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미국 주요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번역에는 대표역자인 이재신 교수 이외에 아주대 윤성승(법학전문대학원), 조두진(물리학과), 이종수(화학)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다윈의 의문'은 화석기록과 현대 분자생물학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다윈의 진화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PEOPLE

2015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14명 임용



- ▲ 박형주(수학과 석좌교수, 계산수학)
- ▲ 김은하(심리학과, 상담심리학) ▲ 윤태중(약학과, 나노약학)
- ▲ 심태섭(화학공학과, 화학공학)
- ▲ 김은하(응용화학생명공학과, 생화학)
- ▲ 고정길(소프트웨어융합학과, IoT융합소프트웨어)
- ▲ 권순선(수학과, 통계학) ▲ 박진선(의학과, 순환기내과학)
- ▲ 배선형(간호학과, 간호학)
- ▲ 정태영(미디어학과, 게임 기획 및 IoT기획)
- ▲ Yewendim Budge Sinshaw (정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
- ▲ Rize Jin(정보컴퓨터공학과, 모바일소프트웨어)
- ▲ Magali Plattet(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 ▲ Philip Chivers(다산학부대학, 영어)

EVENT

총학생회 '아주문화제' 뮤지컬 '셜록홈즈' 공연



아주 구성원과 지역주민 등 3500명이 함께한 뮤지컬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공연이 11월25일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총학생회가 매년 11월 주최해온 '아주문화제'의 일환이다. 올해 공연엔 '셜록홈즈'는 추리소설의 대명사로 불리는 원작을 뮤지컬로 만든 것으로, 각종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연에는 아주대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우면동, 원천동, 광고 등의 지역 주민 1000명도 함께 자리했다.

김동연 총장은 공연에 초청된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람을 같이 하며 상생하는 아주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

AWARD & SELECTION

정보컴퓨터공학과 김시원 학생,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정보컴퓨터공학과 1학년 김시원 학생이 '201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2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5 대한민국 인재상'에는 고교생 및 대학생, 청년 일반 등의 분야에서 총 100명의 인재가 최종 선정됐다.

김시원 학생은 IT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성취를 보이고 있다. 고교 재학 시절 전국 초중고 도서관 검색 어플리케이션(스마트 학교 도서관)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였으며, 올해 '융합SW해커톤 대회'에서 유괴예방SW 구현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선 하차벨 기능 및 긴급 하차 알림 서비스 구현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WARD & SELECTION

박태원 교수, 대한기계학회
'동역학 및 제어학술상'

기계공학과 박태원 교수가 대한기계학회 '동역학 및 제어학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10~14일 열린 <대한기계학회 창립 70주년 기념특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박 교수는 동역학 및 제어 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통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역학 및 제어학술상'을 수상했다. 그는 다년간 철도 및 자동차 분야 등에서 꾸준히 연구를 수행해 왔다.

대한기계학회는 1945년 창립되어 기계공학 분야 학문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해왔다. 현재 약 2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학회는 재료 및 파괴, 컴퓨터이용(CAE) 및 응용역학, 동역학 및 제어, 생산 및 설계, 열, 유체, 에너지 및 동력, 신뢰성, 바이오·마이크로·나노, 플랜트, IT융합, 교육 등 기계공학 관련 13개 전문분야로 조직돼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8개 지역에 지회가 있다.

EVENT

'학생이 뽑은 강소기업 어디?'
아주 히든챔피언 선정

아주대 학생들이 '아주 히든챔피언'으로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히든챔피언은 규모와 인지도는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지만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일컫는 용어다.

히든챔피언 발굴단 50여명은 임직원수 1000명 미만, 매출액 100억~1000억원의 기업 가운데 복지수준, 보유기술, 업종 내 상대적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강소기업 발굴에 나섰다. 선정된 10대 기업은 영일교육시스템, 이트너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모트렉스, 네오 바이오텍, 세트레이, 스텝바이, 크레듀, 솔리드, 아이렌소프트다. 학교는 강소기업들과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채용박람회 개최, 현장실습 등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EVENT

아주대-수원시 주최
2015 드론 페스티벌 열려

아주대학교와 수원시가 함께 주최한 '2015 수원 드론 페스티벌'이 10월12일부터 이틀 간 아주대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중에는 드론 시연을 통해 해난구조, 응급구조, 항공방제 등 드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드론 관련 산·학·연·관 기관들이 보조 운동장에 설치한 부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부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아주대 교수진은 드론 및 무인기 관련 연구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통해 관객과 만났다. 산업공학과 권동진 교수가 유무인기 복합시뮬레이터와 복수무인기 편대비행, 같은 과 고정환 교수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드론제작을 선보였다. 그밖에 국방기술센터 이터 링크 시뮬레이터 체험(국방디지털융합학과 백호기 교수), 무인자동차와 드론의 만남(기계공학과 송봉섭 교수) 등이 소개됐다.

AWARD & SELECTION

장혜영 교수, 화학 저널
<Chemistry Select>
편집위원으로 위촉

장혜영(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화학) 교수가 와이리(Wiley) 출판사가 발간하는 신규 저널 'Chemistry Select'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으로 위촉됐다.

장 교수는 향후 편집위원으로서 저널에 게재될 논문 평가 및 발행 등에 참여하게 된다. 와이리출판사는 과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널을 출간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분야에서 인용지수(Impact factor, IF)가 높은 저널을 다수 펴내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발행되는 'Chemistry Select'는 화학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주제를 포괄한다.

DONATION

공공정책대학원 한마음장학회,
장학금 3000만원 기부

한마음장학회가 지난 9월 장학금 3000만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AFTER YOU 프로그램'에 2500만원, '아주 희망 SOS'에 5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AFTER YOU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재정상 해외 경험을 쌓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위한 고강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 '아주 희망 SOS'는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다. 공공정책대학원 교직원과 석사과정 및 최고위과정 재학생·졸업생이 주축이 된 한마음장학회는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주대 학부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PEOPLE

조진·박승규·이승호
교수 정년 퇴임

2015학년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조진, 박승규, 이승호 교수가 정년 퇴직했다. 지난 9월16일 총장실에서 퇴직교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조진 교수(기계공학과): 프랑스 에콜 센트럴 낭뜨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2년 아주대 교수로 임용됐다. 기계공학과 학과장과 산업교육원 원장보, 자동차부품혁신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박승규 교수(소프트웨어융합학과): 프랑스 INP 그르노블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IBM 왓슨 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근무하다 1992년부터 아주대 강단에 서었다.

▲이승호 교수(수학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0년부터 아주대 강단에 서었다. 이 교수는 자연과학대학 학장, 교무처장, 과학영재교육원 원장, 다산학부대학 학장을 지냈다.

PEOPLE

장기 근속 교수·직원 포상



<근속 교원>

▲ 30년 근속: 김영길(전자공학과) 송현호(국어국문학과) 유제석(기계공학과) 조순행(환경공학과) 조영호(경영학과) 최연익(전자공학과)

▲ 20년 근속: 김봉철(사학과) 김태승(사학과) 김홍식(행정학과) 박범(산업공학과) 안재홍(정치외교학과) 윤원식(전자공학과) 이원희(법학전문대학원) 이재천(대학원 시스템공학과) 이창환(경영학과) 전영목(수학과) 채장범(기계공학과) 최기주(교통시스템공학과) 한봉희(경영학과) 홍민성(기계공학과)

▲ 10년 근속: 강지혜(영어영문학과) 김기형(정보컴퓨터공학과) 김서용(행정학과) 김지은(미디어학과) 김현옥(영어영문학과) 김현희(미디어학과) 김효동(미디어학과) 문우진(정치외교학과) 박만규(불어불문학과) 박지용(물리학과) 석혜정(미디어학과) 성민

제(경영학과) 신강현(심리학과) 신현준(미디어학과) 신희천(심리학과) 오규환(미디어학과) 원동철(금융공학과) 유정훈(교통시스템공학과) 이기근(전자공학과) 이재진(전자공학과) 이종수(생명과학과) 이홍재(경영학과) 장우진(미디어학과) 조위덕(전자공학과) 최동경(전자공학과) 차희성(건축학과) 최희갑(경제학과)

<근속 직원>

▲ 30년 근속: 안선미 계장(생활관), 이미영 과장(공과대학 교학팀)
▲ 20년 근속: 고명식 과장(학생지원팀), 문병철 실장(비서실), 박종채 과장(교수학습개발센터), 양일열 계장(교육대학원 교학팀)
▲ 10년 근속: 강영화 계장(교원팀), 김은희 과장(다산학부대학 교학팀), 심재섭 계장(산학지원팀), 이상현 계장(대학원 교학팀), 이은호 계장(공동기기센터), 홍영수 계장(시설팀)



"AFTER YOU" 프로그램 기금

정관계 고위인사의 아주사랑

정홍원 전 총리, 황교안 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장관, 남경필 지사 등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AFTER YOU" 기금에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기부금을 쾌척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명실상부한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따뜻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주대가 펼쳐지는 'AFTER YOU' 프로그램은 원활한 계층이동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면서 더 확산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뜻을 꾀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부에 주신 정관계 인사는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권순일 대법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광림·김영우·박광은 국회의원 등이다.



재계·금융계 주요인사의 아주사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금융권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의 "AFTER YOU" 프로그램 참여도 이어졌다. 은행·보험사 CEO 뿐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기부금을 쾌척한 경우도 있었다. 주요 기부자는 다음과 같다.

곽범규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병호 하나은행 행장, 김민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흥은 경남은행 행장, 서형근 IBK기업은행 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문국 ING생명 대표이사, 조용병 신한은행 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용모 SBS 대표이사,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이재현 CJ나눔재단 대표,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조준희 YIN 사장, 이종대 퍼시스 사장

사회 저명인사의 아주사랑

50구좌(5천만원) 넘는 기부자 김홍국 하림 회장, 김동연 아주대 총장

"AFTER YOU" 프로그램에 일시금 혹은 꾸준히 기금을 내주시는 분들 중 첫 50구좌를 넘긴 두 명이 생겼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50구좌(1구좌 100만원)를 약정과 동시에 일시 쾌척하였다. 김 회장은 지난 여름 시행된 첫 번째 "AFTER YOU" 프로그램에 멘토로도 참여, 특강과 멘토링데이를 통해 아주대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들려주기도 했다. 하림그룹은 평소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한편 아주대 김동연 총장은 매달 급여에서 절반을 꾸준히 기탁, 50구좌를 넘겼다. 또한 김 총장은 외부 강연료를 <아주SOS>에 기탁해오고 있는데, 11월 말 현재 2100여 만원을 기록 중이다. <아주SOS>는 급작스런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맞은 아주대 학생들에게 긴급 무상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FTER YOU" 운동과 <아주SOS>는 김 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Donors 사회인사의 아주사랑...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이동준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이교범	강경태	권영민	김병철	김영철	김지호	남상진	박동진	박우진	서진원	신정진	임태문	유재철	이규환	이승현	이종호	임경근	정동원	조영호	최수연	한종욱
김영수	김영수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실타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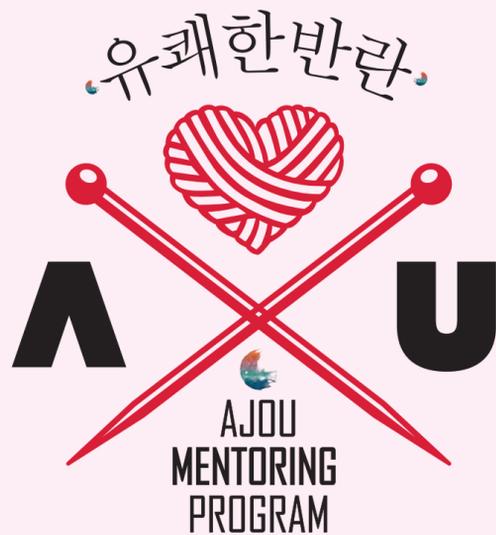
유쾌하게 풀어주는 멘토링

아주대생은 누구나 학업, 진로, 인생 등 '유쾌한 반란 멘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교내 인사 및 외부 인사로 멘토단(mentor pool)이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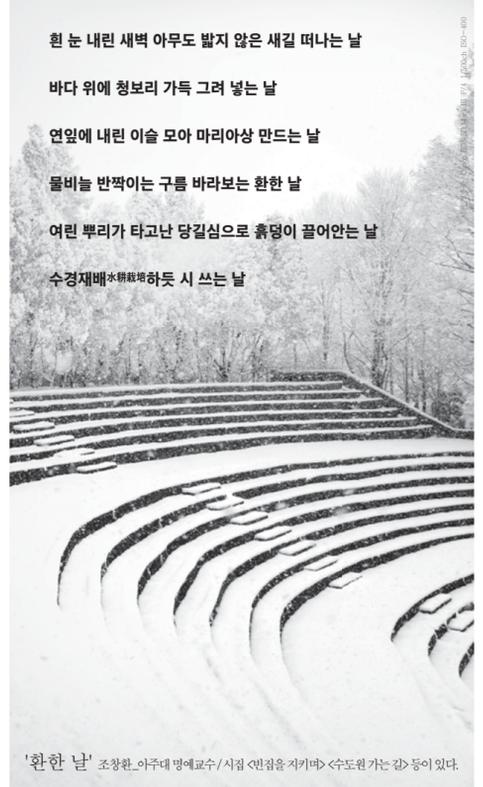
멘티는 원하는 멘토와 매칭 시킵니다.

최소 월 1회 이상의 만남 등 계획적이고 알찬 운영안이 준비됩니다.



인생, 체온이 있는 스승과 함께 풀자—
유쾌한 반란 36.5℃

유쾌한 반란-멘토링 프로그램
2016. 2월 출범



'환한 날' 조창환, 아주대 명예교수/시집 <만점을 지키며> <수도원 가는 길> 등이 있다.

CREDITS

PUBLISHER	president	김동연
CHIEF EDITOR	brand strategy dept. moc.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남경호
EDITORS	brand strategy dept.	이슬 심경석, 이재희
PHOTOGRAPHER	brand strategy dept.	정우준, 이재희
ART	brand strategy dept. tre lumache cr. printmediatech	권지영 김은정, 김진아 진경미, 조예은, 지승연
PROCEEDING ASST.	ajou univ. digital media_senior digital media_senior industrial engineering_junior	김학준 양시욱 차은지
PRINT MANAGER	alaska	장준우, 지환섭
SUPERVISOR	brand strategy dept.	박승하

PAPER STORY

PAPER Munken Print Cream 18

종이 본연의 따스한 감성과 감촉을 가진 특별한 디자인 종이
무염소 표백 펄프(ECF pulp) 사용, FSC 산림 인증, 스웨덴 원산.

고품질의 친환경 제재가 가능합니다

유럽 및 국제 환경 경영 시스템인 EMAS 인증, ISO14001 인증 종이입니다.
영구 보관용 용지 국제 기준인 ISO9706 인증의 증성지로
탁월한 보존력을 가집니다.

ISO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 제정, 환경경영 체제에 관한 국제표준

EMAS 유럽 환경 경영과 감사 시스템



Copyright © 2015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 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제를 환영합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7대, 031-219-2114